

소피아 벨: 전 중국 관료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집필됨

붉은 베일

THE RED VEIL

한 전직 고위 관료의 증언: 신념 때문에 딸이
살해당했을 때 찾아온 각성

붉은 베일

(THE RED VEIL)

한 전직 고위 관료의 증언: 신념 때문에 딸
이 살해당했을 때 찾아온 각성

저자: 소피아 벨 (Sophia Bell) 엮음

(미국으로 망명한 전직 중국 관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함)

Copyright © 2025 THE LIVES MEDIA. 모든 권리 보유.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자 주

이 책은 실제 이야기, 사건, 배경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생활을 존중하고 특정 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피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신상 정보는 문학적 형식에 따라 변경, 축약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책의 일부 내용은 사건 당사자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서술되었으며, 당시 그들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THE LIVES MEDIA 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체에 있어서 편집부에서 필요한 수정을 가했지만, 원작 인물을 존중하고 이야기의 정신과 생동감을 보존하기 위해, 저희는 등장인물의 소박한 느낌과 본래의 어조를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편집부



머리말

사람은 누구나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소박하고 평범한 꿈이 있는가 하면, 한 국가와 한 시대의 명운을 짊어진 거대한 꿈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중국의 꿈’을 설계한 건축가였던 한 사람이, 어느 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체제가 결코 치를 수 없는 대가,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이라는 성이 무너지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모든 믿음이 잿더미로 변했을 때, 사람은 어디에서 기댈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권력의 논리와 유물론적 이론이 거대한 고통 앞에서 무력해질 때, 사람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붉은 베일’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책은 정치 분석 서적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고백이자, 가족의 비극으로 거짓의 장막이 찢겨나간 후 진실과 벌거벗은 채로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여정은 '각성(覺醒)'의 여정입니다. 한때 자신이 신뢰했던 체제의 본질을 깨닫는 각성, 한때 자신이 부정했던 영적 신념의 힘을 이해하는 각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망의 끝을 경험한 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각성입니다.

독자 여러분을 이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의 대가, 권력이라는 꿈의 허망함, 그리고 가장 칙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양심의 빛에 대해 함께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피아 벨 (Sophia Bell)

* * *

첫째 날

류사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띤다. 처음에는 약간 망설이는 듯한 차분한 목소리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길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으셨죠?

소피아 벨 (Sophia Bell):

네, 류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기자에게 장소 찾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인터뷰'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네요. 너무 딱딱하게 들리니까요. 저는 이것을 류 선생님께서 THE LIVES MEDIA의 독자분들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다리 역할을 할 뿐이고요...

류사원:

(주의 깊게 듣다가, 처음에는 약간 살피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그녀의 말을 들으며 이내 부드러워진다. 그는 다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얼굴에 생각에 잠긴 표정이 스쳐 지나간다.)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그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듯 나지막이 되뇌는다.)

네, 소피아 씨, 그 표현이...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군요. '인터뷰'라고 하면 제가 마치 심문 대상이거나, 해부되어야 할 사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나눔'은... 자발성과 진심을 담고 있지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소피아를 본다.)

THE LIVES MEDIA 라... 네, 그 신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이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거나,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정보들을 전하며 존중받을 만한 많은 일을 해왔지요. 아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다. 그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하려는 듯하다.)

자, 소피아 씨. 이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제 인생에도 많은 굴곡이 있었고, 어떤 것들은 아마... 입에 담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안연(安然)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소피아 벨:

네, 지난번 이메일로 보내드린 소개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여러 국가에 기자 네트워크를 둔 독립 언론사이며, 전 세계 독자들을 지향합니다... 저희는 진실, 진심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선량함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저희가 선생님에 대해 소개받았을 때, 선생님이야말로 THE LIVES MEDIA 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좋은 가치를 대표하는 분 중 한 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 오신 지 1 년 정도 되셨는데, 이곳의 '공기'는 어떻다고 느끼시나요? '빌어먹을 자본가들'이 '더러운 달러' 몇 푼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시끄럽고 혼잡한 시장 같던가요?

류사원:

(소피아의 질문을 듣고 희미하고도 어딘가 아련한 미소를 짓는다. 그는 잠시 자신의 찻잔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이 깊다.)

"시끄럽고 혼잡한 시장... 빌어먹을 자본가들의 더러운 달러?"

(그는 마지막 단어들을 조롱하는 투가 아니라, 그 의미를 곹씹는 듯한 어조로 되뇌었다.)

소피아 씨, 그건... 예전에 다른 환경에 있을 때 제가 들곤 했던, 심지어 한때는 주입받기도 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단 하나의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도록 강요당하면, 비치는 모습 또한 그 한 가지 색깔뿐이겠지요.

(그는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곳에서의 1 년...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공기'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물론 분주함도 있고, 경쟁도 있고, 사람들이 소위 '아메리칸드림'이라 부르는 물질적인 것에 몰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가끔 맨해튼의 붐비는 인파 속에서 있으면 저 역시 압도당하고, 그 굴레가 참 강력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그 '혼잡함'이 있다면, 그건 아주 다릅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좁은 우리 안에서의 생존 경

쟁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저는 일종의... 자유를 느낍니다. 추구할 자유, 실패할 자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목소리를 낼 자유, 설령 그것이 다수의 의견에 반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믿을 자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았고, 슬픈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이곳에서의 1 년 동안 제가 가장 뚜렷하게 느낀 것은 '더러운 달러'가 아니라, 자유로운 숨결의 가치였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저와 수많은 다른 사람들, 특히 제 딸... 안연이...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소피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물론, 천국인 곳은 없습니다. 어느 사회든 그늘은 있고, 불공정함도, 미완성된 부분도 있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그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내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그것을 고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소피아 씨. 이곳은 좋은 사람들이든 나쁜 사람들이든 각자가 비교적 온전하게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갖는, 훨씬 더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익숙해지려 노력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있는 점입니다.

소피아 벨:

네, 이해합니다. 미국식 서구 자본주의가 '금과옥조'는 아니겠지요. 모든 것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도 아닐 테고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오늘은 미국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태평양 건너편 사람들의 삶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류사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테이블 위 찻잔으로 시선을 떨어뜨린다. 그는 더 힘든 여정을 준비하듯,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으며 몸을 약간 움츠렸다.)

맞는 말씀입니다, 소피아 씨. 우리가 미국 사회의 장단점을 논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그곳은 제가 평생을 거의 다 바쳐 살아온 곳이 아니니까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소피아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한층 무거워져 있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태평양 건너편..."

(그는 그 말을 되뇌었다. 목소리가 확연히 낮아졌다.)

그곳은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젊은 시절의 기쁨, 희망, 이상... 그리고 환멸, 고통, 그리고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상실까지도요.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혹은 끌어오르는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듯 잠시 침묵했다.)

말씀하신 대로, 삶의 조각들, 운명들... 그것이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두서없을 수도 있고, 감정이 벅차올라 말을 잇기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진실은 알려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믿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억울함을 겪어야 했던... 선량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대한 진실은 말입니다.

(피로가 깃든 그의 눈에 단호함이 어렸다. 그는 소피아를 똑바로 응시했다.)

자, 그 길고 슬픈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 나름의 '중국몽'을 품었던 젊은 시절부터일까요, 아니면 제 인생과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사건들부터일까요?

소피아 벨:

네, 독자분들이 이야기를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우선 선생님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미국에 오게 되셨는지에 대해서요...

류사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정을 되찾고 기억을 정리하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쉴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섰다. 그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네, 소피아 씨. 여러분이 제가 걸어온 길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는 단어를 고르듯 잠시 머뭇거렸다.)

저는 동부 해안의 한 지방,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학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학문에 재능을 보여 늘 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일찍이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아, 장래가 촉망되는 '새싹'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제 학업의 길은 꽤 순탄했습니다. 저는 수도에 있는 국내 최고 명문 대학 중 한 곳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저는 강대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학문, 즉 정치경제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저는 학교에 남아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연구와 집필에 몰두하며 박사 학위를 받고, 마침내 교수 직함까지 얻게 된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얼굴에 깊은 사색의 빛이 역력했다.)

제가 서른다섯, 서른여섯 살 무렵, 중국의 미래 발전 방향과 여러 체제의 장점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결합한 모델에 관한 제 소논문들이 학계와 일부 고위 지도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를 교단에서 정치계로 이끈 전환점이었을 겁니다. 저는 중앙급 정책 연

구 기관에 초빙되어 일하게 되었고, 그 후 '실무 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남쪽의 한 대도시, 역동적인 경제 중심지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열심히 일했고, 부시장에 상응하는 직위까지 오르며 도시 계획과 발전을 책임지는 등 나름의 승진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고, 눈빛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제가 왜 미국에 왔느냐...

(그는 아주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긴 이야기입니다, 소피아 씨.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전환점이었지요. 그것은 제 외동딸, 류안연(劉安然)과... 그리고 제 세계관과 믿음, 제 삶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린 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제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고 제 딸과 제 가족,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말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광저우 주재 미국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깎지 낀 두 손을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방 안의 공기도 한층 무거워진 듯했다.)

이것이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마 이야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소피아 벨:

네, 참 다채로운 그림이네요... 한 젊은이의 이상, 사상가이자 정치가로서의 성장, 그리고 가족과 딸에 대한 아픔까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따님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슬픈 이야기였고, 만약 저였다면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선생님과 따님께 깊이 공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준다면, 저희는 기꺼이 선생님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젊은 시절의 이상이나 가장 보람 있었던 성취 같은 조금 더 가벼운 주제부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류사원:

(소피아의 말을 듣자 그의 눈이 가볍게 깜박였다. 고뇌가 깃든 그의 얼굴에 따스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소피아 씨... 이해해 주셔서요. 안연의 일은... 정말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저 역시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남아있던 약간의 믿음, 제 목소리가 비록 작더라도 무언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줄기 희망 덕분이었을 겁니다.

(그는 무거운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잠시 말을 멈추고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도 좀 더...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의 조각들을 천천히 맞춰 나갈 수 있도록요.

(그는 슬프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이상이라...

(그는 회상에 잠긴 목소리로 되뇌었다.)

그 시절 저도 다른 젊은이들처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역사적 격변 이후 나라가 여전히 어려웠던 시기에 태어나고 자란 저희 세대는, 새로운 중국, 세계가 존경하는 부강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대학 교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연구자이자 강사가 되어서도 제 안의 그 불꽃은 여전히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경제, 정치, 철학 연구에 심취했습니다... 단순히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나라를 가난과 낙후에서 벗어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이끌 가장 적합한 현실적인 길, 하나의 모델을 찾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는 소피아를 보았다. 약간의 자부심이 스쳐 지나갔다.)

가장 보람 있었던 성취라면... 아마도 제 모든 심혈을 기울여 썼던 책들과 소논문들이겠지요. 그 안에서 저는 단지 경제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면에서도 선진적이고, 사회 질서가 잡혀 있으며, 국민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현대적인 중국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저는 서구와 다른 선진국들의 좋은 점을 배우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는 나라를 상상했습니다. 저는 인재가 존중받고,

법치가 존중되며, 나라가 진정으로 등대가 되는 저만의 '중국몽'을 꿈꿨습니다.

(그의 미소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사색이 채웠다.)

그 시절 저는 올바른 노선과 헌신적인 사람들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들과 그 글들에 제 모든 지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엘리트층과 일부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그 위대한 대업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는 어느 정도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때는... 정치의 소용돌이와, 훗날 닥쳐온 잔혹한 사건들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기 전까지, 제 삶이 가장 의미 있다고 느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소피아 벨: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중국의 꿈'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중국 지도부의 정치 사상인 '중국몽(中國夢)'과 매우 유사하게 들리는데요?

류사원:

(소피아의 질문을 듣자, 그는 가볍게 눈썹을 치켜올렸고, 복잡한 사색의 빛이 얼굴에 떠올랐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한 마디 한 마디를 신중하게 고르는 듯했다.)

소피아 씨, 아주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중국몽"...

(그는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되뇌었다.)

네, 언어적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점 역시 나중에 저를 무척이나 고뇌하게 만든 것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벽을 꿰뚫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허공을 응시했다.)

그 시절, 저와 다른 많은 지식인들이 나라의 미래를 고민할 때, 그 단어나 비슷한 개념들은 아마 시대 사상의 흐름 속에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조국이 강대해지고 민

족이 영광스러워지기를 바라니까요. 제가 그때 가졌던 '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명과 법치가 있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비교적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면적으로 발전한 중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의 정수를 배워 독창적이고 우월한 모델을 만들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슬픈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꿈'은... 단순히 인상적인 경제 성장률이나, 마천루, 혹은 최첨단 무기 같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 진정한 법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덕적 가치와 양심이 짓밟히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특정 집단만이 아닌,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널리 외치는 것을 보게 된 '중국몽'은...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머뭇거렸다.)

저는 그것이 다른 옷을 입었거나, 혹은 아마도 저와 동시대의 많은 이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씁쓸함이 묻어났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언어의 껍데기를 빌려왔지만, 그 속 알맹이는... 전혀 다른 것, 즉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의 당파, 하나의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 자유를 기꺼이 희생하고, 다른 목소리를 억누르며, 핵심적인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꿈 말입니다.

때때로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비록 순수했을지라도, 제 처음의 아이디어들이 결국 이용당할 환상, 구호를 만드는데 본의 아니게 기여한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것은 아마도... 제가 평생 온전한 답을 얻지 못할 질문일 겁니다.

(그는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으로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제가 한때 좇았던 그 '꿈'은 산산조각 났거나, 적어도 제가 더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었습니다, 소피아 씨. 그리고 그 붕괴는, 소위 '강대함'을 건설하기 위해 사람들

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제가 깨달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 벨: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생님께서는 젊은 시절과 정치가로서의 경력 내내, 나라 전체와 각 가정, 각 개인을 위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사유 경제 발전, 과학 기술, 법치 사회를 중시하신다는 큰 틀 외에, 선생님께서 당시 구상하셨던 '꿈'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 종교나 신념의 자유, 부패와 타락 문제, 혹은 미국, 싱가포르, 일본,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특정 모델을 기반으로 하셨는지 등에 대해서요.

류사원:

(매우 주의 깊게 들으며, 소피아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바라본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슬픈 미소가 스쳤다 사라지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피아 씨,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그리고 정치에 입문한 후에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비록 돌이켜보면,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들도 있었고, 제가 선택했던 길이 원하던 목적지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요.

(그는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당시 제 '꿈'의 핵심에 대해 물으셨지요... 경제, 과학 기술, 법치에 대해 말씀드린 것 외에도, 비록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거나 인식에 오류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제가 고심했던 다른 측면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관해서는, 솔직히 당시 저는 그것을 다소 제한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국가 정책에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 학술적 토론이 장려되는 공간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모든 시민이 국가의 방침에 반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언론의 자유까지는 충분히 상상하지 못했거나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질서'와 '안정'을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여기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는 얼굴에 뚜렷한 가책을 드러내며 머뭇거렸다.)

이것은 돌이켜볼 때, 제가 매우 편협하고 심지어 잘못된 인식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저는 변증법적 유물론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종교, 신념, 그리고 나중에 파룬궁(法輪功)과 같은 수련 형태까지도 과거의 유물, '미신', 심지어 과학과 합리적 사고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는 체제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당시 제 '꿈' 속에는 이런 것들을 위한 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회가 발전하고 물질적 생활이 풍족해지면 그런 '미신'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심각한 착오였습니다, 소피아 씨.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모든 건설적 노력을 파괴할 수 있는 암적인 문제라고 인식했습니다. 저는 강력한 법치 체제, 간결하고 청렴한 국가기구, 그리고 엄격한 제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저는 '구조'를 세우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인간 시스템' 내부의 부패와 이익 집단의 무서운 힘, 그리고 근본적인 도덕적 가치의 부재를 충분히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모델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나라를 연구하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제가 매우 주목했던 모델입니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정치, 비교적 청렴하다고 알려진 행정기구, 그리고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이룬 놀라운 경제 발전 속도. 저는 그곳 지도부의 결단력과 장기적인 비전을 흠모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는 시장 경제의 역동성, 선진 과학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을 배웠습니다.

일본의 규율, 노동 정신, 전쟁 후의 기적적인 부흥,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도 눈여겨보았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국가 모델과 비교적 높은 사회적 평등 또한 제가 고심했던 부분이지만, 중국의 실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 목표는 이러한 모델들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수를 추출하고, 중국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독자적인 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강력한 방향성을 가진 국가 자본주의' 또는, 공산당이 여전히 지도적 역할을 유지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효율적인 법치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중국적 색채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같은 것이었죠.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돌이켜보면, 당시 제 '꿈'은 비록 제가 여전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결함이 있었고 다소 순진했습니다. 저는 특정한 시각에서 '효율', '힘', '질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 특히 사상과 신념의 자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바로 제가 한때 믿고 섬겼던 바로 그 시스템 안에 잠재된 위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 가장 큰 결점, '맹점' 중 하나였을 겁니다.

소피아 벨:

네, 조국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과 포부가 느껴집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꿈'의 여러 부분들은 중국이 이미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항공우주 과학, 생명 공학, 신에너지 분야 등... 그리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의 경제 및 과학 발전에 대해 매우 인상 깊게 본 구체적인 사례는, 바로 전국에 걸쳐 주요 도시들을 잇는 고속철도 시스템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교통망입니다!

류사원:

(소피아의 말을 들으며, 씩씩함이 섞인 옅은 미소가 입가에 번진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자신의 경험과 대조하는 듯 먼 곳을 응시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소피아 씨. 밖에서 보기에, 그리고 관영 매체가 끊임없이 미화하는 숫자와 화려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본다면, 중국이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항공우주, 생명 공학, 신에너지... 그리고 특히 언급하신 고속철도 시스템까지요. 저 역시 그 계획들이 점차 형태를 갖추어 갈 때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중 다수는 저희 세대, 즉 정책 입안자들이 품고 꿈꿔왔던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가 낮아졌다.)

최초의 고속열차가 현대적인 고가교 위를 달리며 각 지역을 연결할 때, 저는 그 열차가 승객뿐만 아니라 번영, 연결, 그리고 희망을 실어 나른다고 상상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가는 '꿈'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벼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하지만, 제가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을 때, 아니 더 정확히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들이 제 눈앞에 드러났을 때, 저는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공'을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무엇인가?

그 고속철도 노선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농민의 땅이 헐값에, 심지어 강제로 수용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집이 허물어지고, 얼마나 많은 삶이 적절한 보상 없이 뒤엎겨버렸는가? 그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막대한 '리베이트'가 부패 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는가? '진척'과 '이미지'를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반대의 목소리와 국민의 청원이 무자비하게 억압되었는가?

(그의 목소리가 약간 메이는 듯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세상이 감탄하는 다른 많은 '성과'들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현대적인 공장과 거대한 공업 단지 뒤에는 파괴된 환경과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수출 수치 뒤에는 가혹한 노동 조건과 수백만 노동자들의 땀, 그리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 시절, 저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거시적인 목표와 인상적인 숫자에 너무 취해 있었나 봅니다. 모든 프로젝트와 숫자 뒤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구체적인 사람들의 운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일부 개인의 희생이 집단과 국가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교육받았고, 아마 스스로를 그렇게 속여왔을 겁니다.

(그는 통한이 담긴 눈빛으로 소피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씀하신 그 '빛나는 점들', 네, 그것들은 실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마치 거대한 무대 위의 눈부신 스포트라이트와 같아서, 그 뒤편 어두운 구석, 이름 없는 배우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곳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때로는 바로 그 '빛나는 점들'이 저 어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때 경제와 과학 기술의 발전이 저절로 더 나은 사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도덕적 기반이 없다면, 진정한 법치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인권에 대한 경청과 보호가 없다면, 그 어떤 물질적 '성공'도,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더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고 국민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걸치레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소피아 벨:

네,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통계 수치만 보면 세계에 정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품의 품질은 세계가 경계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며 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시 선생님의 '꿈' 속에는 이 측면도 포함되어 있었나요? 만약 그랬다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공정 개선? 첨단 기술 도입? 기술력 향상? ... '도덕'이라는 범주가 제품 품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류사원:

(제품 품질에 대한 소피아의 논평을 들으며, 그는 얼굴에 뚜렷한 우려를 드러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두 손을 깍지 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소피아 씨.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품질 문제는 슬픈 현실이며, 국제 소비자뿐만 아니라 양심 있는 중국인들 스스로에게도 고뇌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되새기도록 강요받는 민족적 자부심과는 정반대로, 씻기 어려운 오점과도 같습니다.

(그는 회상하는 듯 잠시 침묵했다.)

당시 제 '꿈' 속에서, 경제와 기술 강국 중국을 그릴 때, 저 역시 나라가 국제 시장에서 품질과 신뢰를 갖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강대국이 저임금 노동력과 저품질 제품에만 의존하여 경쟁하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중국 제조)'에서 '크리에이티드 인 차이나(Created in China, 중국 창조)'로, 그리고 더 나아가 '트러스티드 인 차이나(Trusted in China, 중국 신뢰)'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저 또한 방금 언급하신 해결책들을 구상했었습니다.

공정에 관해서는, 국제 표준에 근접하는 엄격한 국가 표준과 독립적이고 투명한 품질 감독 및 검증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첨단 기술 도입에 관해서는,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선진 기술을 생산에 적용하는 것이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필연적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술력 향상에 관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드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 훈련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소피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가 한층 진지해졌다.)

하지만, 소피아 씨, 이 모든 기술적인 해결책들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단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근본은, 제가 생각하기에, 방금 언급하신 범주, 즉 당시 제가 이 분야에서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 범주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입니다.

(그는 '도덕'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왜 멜라민이 섞인 분유, 불량 식품, 가짜 약, 유해 장난감 같은 제품들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기술이나 공정이 부족해서일까요? 일부는 그렇겠지만,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주된 이유는 이윤을 위해 동포의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도 서슴지 않는 일부 사람들의 끝없는 탐욕, 즉 비즈니스에서의 도덕적 타락입니다.

돈이 최고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이윤 추구라는 목표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때, 전통적인 선한 도덕적 가치들이

경시되고 심지어 조롱받을 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양질의 안전한 제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한 사업가를 처벌할 만큼 법 체계가 엄격하지 않을 때, 부패가 만연하여 검증 기관을 통과하기 위해 '뒷거래'나 '뇌물'이 보편화될 때, 어떻게 공정과 표준이 진지하게 실행될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며, 단지 생산 도구로만 여겨질 때, 어떻게 그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열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씩씩함이 묻어났다.)

그 시절, 저는 아마 '메커니즘', '정책', '기술'의 힘을 너무 맹신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도자, 관리자부터 생산자,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에 견고한 도덕적 기반이 없다면, 품질을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했습니다.

도덕의 타락이야말로, 제가 보기에, 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고질병 중 하나이며, 비단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 명령이나 공허한 구호에만 의존할 수 없

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각성, 핵심적인 인류 보편적 가치의 회복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제 '꿈' 속에서 제가 끝까지 보지 못했거나, 감히 직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피아 벨:

네, '꿈'은 정말 꿈이군요. 우리가 '깨어날' 때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깨어나셨는지 독자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선생님을 깨어나게 했나요? 그것이 선생님의 슬픈 이야기와 관련이 있나요?

류사원:

(소피아의 질문을 듣고, 그는 잠시 가만히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평온함도 섞여 있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꿈... 우리가 깨어날 때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는 낮고 잠긴 목소리로 되뇌었다.)

맞습니다, 소피아 씨. 가슴 아플 정도로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 꿈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꿈이었죠. 그리고 깨어났을 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별거벗고 잔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의 '각성'은, 마치 사람들이 전등 스위치를 켜듯 갑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들로 시작해, 점차 넓어지다가, 마침내 제 마음속에 세웠던 환상의 성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까지, 천천히, 고통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을 때, 저 역시 때때로 불안정한 것들, 불공정한 것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종종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고, 그것들은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국소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스스로 변명하고 안심 시키곤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원대한 목표가 사소한 결점들을 정당화해 줄 것이라고 애써 믿었습니다. 혹은 아마도, 저는 계획과 서류상의 숫자에 너무 집중한 나

머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고통을 직시할 용기도, 감수성도 부족했던 것이겠지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하지만 진정한 '각성', 모든 것을 무너뜨린 마지막 충격은, 당신이 느낀 대로... 제 딸, 안연(安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서둘러 손으로 훔쳐내고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다.)

제 딸이, 우수한 학생이고 맑은 영혼을 가진 그 아이가, 단지 선(善)을 향한 온화한 수련법인 파룬궁(法輪功)에 대한 믿음 때문에 체포되고 감금되었을 때... 그때 제 안의 균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벌 다툼으로 정계에서 밀려난 후 제게 남은 얼마 안 되는 인맥과 지위를 이용해 알아보려 하고, 개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라고는 침묵, 회피, 혹은 공허한 약속뿐이었습니다.

저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진 기관의 냉혹함과 무감각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덮기 위해 정교하게 날조된 거짓말들을 보았습니다. 한때 저

와 악수하며 환하게 웃던 옛 동료들이 마치 제가 나병 환자라도 되는 양 등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이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리고... 제가 안연에 대한 끔찍한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장기를... 적출당했다는...

(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두 어깨가 떨렸다.)

(한참 후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시선에는 무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소피아 씨, 바로 그 순간은 더 이상 '각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섬겼던 그 체제의 소위 '정의'와 '공의'에 대한 모든 이상과 믿음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체제의 사악하고, 비인간적이며, 극도로 기만적인 본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몇몇 '미꾸라지'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부터 독에 오염된 웅덩이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한때 품었던 '중국몽'은 이제 제 딸처럼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그려진 비극적인 희극, 허황된 그림 속 떡처럼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끝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으로 '깨어났습니다'. 제가 틀렸고, 눈이 멀었으며, 본의 아니게 비인간적인 기계의 부속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 또한 악에 동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저는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안연을 위해서, 그리고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의 다른 안연들을 위해서요.

소피아 벨:

네, 선생님을 뵈기 전에 따님의 경우에 대해 들었고, 독립 기자로서 비슷한 가슴 아픈 사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범'과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장기 적출 범죄는 정말 끔찍합니다... 그것은 폭압적인 정권의 극악무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잃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이제 깨어나셨으니, 후회되는 점도, 다시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상을 다루는 정치가로 재직하실 당시, 종교 일반과 파룬궁에 대한 선생님의 관점은 어떠셨나요?

류사원:

(소피아의 말을 들으며,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소피아가 '정치범', '양심수', 그리고 장기 적출 범죄를 언급하자,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고통이 역력했지만, 그는 이내 감정을 억눌렀다.)

네, 소피아 씨... "극악무도함", 그 표현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범죄가 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닥쳤을 때, 진실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벌어졌고 끔찍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안면을 잃은 고통은... 네,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저를 따라다닐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후회되는 것이 너무나 많고, 다시 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생각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제가 일찍 깨달았다면, 만약 제가 배운 것을 너무 믿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딸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다면... 아마도...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메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을 직시하고, 남은 생 동안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자신의 인식이 매우 달랐던 먼 과거의 기억들을 정리했다.)

재직 시절, '사상' 업무를 하던 시절의 종교와 파룬궁에 대한 제 관점을 물으셨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저 역시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편견과 일방적인 선전에 깊이 지배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종교 일반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특정 역사적 단계의 산물이며, 마르크스가 말했듯 '인민의 아편'이라고 교육받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종교를 과거의 유물로 보았고, 특정 문화적, 도덕적 가치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는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유물론적 사회와는 맞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국민의 물질적 생활이 향상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종교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입안에 참여했던 발전 계획이나 프로젝트에서, 종교는 인간의 정당한 정신적 요구 혹은 사회에 긍정적인 자원으로 보기보다는, 종종 전반적인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도'해야 할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파룬궁에 대해서는, 1999 년 탄압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얼굴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렸다.)

그때 저는 연구 경력의 정점에 있었고, 막 정치계에 입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접했던 정보는, 체제 내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국가의 공식 언론 채널을 통해서였습니다. 뉴스, 기사, 선전 자료들은 모두 파룬궁을 '사교(邪教)', 즉 기공의 탈을 쓴 반동적인 정치 조직으로, 사회 안정과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솔직히, 당시 저는 깊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거대한 프로젝트와 계획들로 바빴습니다. 저는 그 정보들을 검증할 필요 없는 사실로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수련을 추구하고 신불(神佛)을 믿는 사람들을 '미신적'이고 '낙후된' 사람으로 보는 유물론자로서의 선입견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파룬궁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왜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탄압해야 하는가?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가책이 묻어났다.)

제가 성(省)급 관리가 된 후에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지만, 제가 받은 탄압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일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투쟁 강화'와 '단호한 처리'를 요구하는 중앙의 지시이거나, 파룬궁 수련생 '전향' 실적에 대한 하급 기관의 보고였습니다. 저는 수련생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고, 아마 적극적으로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저의 관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무관심, 즉 '정부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암묵적인 수용이었습니다. 기껏해야 때때로 조치가 다소 지나치게 강경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이내 그것은 '전문 기관의 일'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렸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했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정신적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탄압이라는 것일요.

(그는 깊은 후회가 역력한 눈빛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맹목이자 무관심이었습니다, 소피아 씨. 그리고 저는 그 맹목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제 가족, 안연에게 비극이 닥치고 나서

야, 저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얼마나 속았고 또 스스로를 속여왔는지 망연자실하며 깨달았습니다.

소피아 벨:

선생님 말씀은, 파룬궁 탄압과 관련하여 얻으신 정보가 모두 일방적이었고, 선생님과 같은 고위 관리조차도 실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셨다는 뜻인가요? 심지어 재직 중에는 장기 적출 범죄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으셨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류사원:

(소피아의 질문을 듣고, 그는 씩씩함과 부끄러움이 깃든 눈빛으로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피아 씨.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사건, 비극에 대해 그렇게나 무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소피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방적인 정보"... 그것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철저히 통제된 정보의 거품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읽고, 텔레비전에서 보고, 회의에서 듣는 모든 것은... 특정 의도에 따라 이미 걸러지고 방향이 설정된 것들이었습니다. 하급 기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 역시 상급자를 만족시키거나 골치 아픈 문제들을 덮기 위해 미화된 '아름다운' 숫자들이나 과장된 성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내부에서조차 파룬궁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회피하거나, 공식적인 논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감히 질문을 던지거나 의심을 표하는 사람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사상에 문제가 있다', '입장이 확고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두려움은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제 무지를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더 적극적으로 알아봤어야 했고, 더 책임감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일과 개인적인 야망의 굴레에 휘말려 있었고, 아마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자만심도 일부 있었을 겁니다.

장기 적출 범죄에 대해서는...

(그의 목소리가 푹 떨어졌고, 혐오와 경악이 눈빛에 역력했다.)

소피아 씨, 제가 재직 중일 때, 저는 공식적인 경로든, 심지어 내부적인 수군거림이든, 이 이야기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를 힘주어 말했다.)

아마도 그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 비밀로 유지되었거나, 특정 부서에만 국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는 사람들조차 그 끔찍한 성격 때문에 감히 입을 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이 범죄에 대해 처음 들은 것은 제가 모든 직위를 잃고, 제 딸이 체포된 후였습니다. 몇몇 파룬궁 수련생들이 저를 찾아와, 그들이 아는 것과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독재적인 정권이라도 그렇게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짓을 할 수 있다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과장된 비난이며, 분노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악의 '한계'에 대한 희미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다시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

오직...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이 바로 제 딸 안연에게 닥쳤을 때... 남은 양심과 모든 위험을 무릅쓴 옛 부하 직원이 제게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비밀리에 알려주었을 때... 그때서야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주 작은 환상마저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사상 관리'를 하던 관료였던 저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제가 한때 섬겼던 그 체제가 정보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가장 끔찍한 범죄조차도 뻔뻔한 거짓의 장막으로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노와 고통이 그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는 듯, 그는 침묵했다.)

소피아 벨:

네, 마치 한 편의 비희극(悲喜劇)처럼 들립니다... 제 말이 좀 심하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깨어나셔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 그 안에 담긴 비극과 희극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류사원:

(소피아의 논평을 듣고, 그는 전혀 자존심 상하거나 불쾌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대신, 슬프고 거의 씁쓸한 냉소에 가까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 편의 비희극..."

(그는 낮고 사색에 잠긴 목소리로 되뇌었다.)

아닙니다, 소피아 씨. 전혀 심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깨어나서' 그때까지의 제 삶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저 역시 그것이 한 편의 연극과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배우이자 관객이었고, 아마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각본을 쓰는 데 일조한 사람이기도 했던 연극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자신의 인생 장면 하나하나를 다시 보는 듯 먼 곳을 응시했다.)

그 연극의 '희극적인' 부분은 아마도 저의 순진함, 저의 환상이었을 겁니다. 조국 건설이라는 큰 꿈을 품고, 등불 아래 책에 몰두하며, 고상한 이론과 아름다운 약속들을 믿었

던 시골 출신의 젊은이. 그리고 자신이 진리를 쥐고 있고, 한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계획과 숫자, 웅변적인 연설에 취해 있던 지식인이자 관리. 스스로를 계몽가이자 길잡이라고 여겼지만, 실은 자신도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에 불과하거나, 더 나쁘게는 다른 눈먼 이들을 어둠 속으로 이끄는 눈먼 이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 지요.

제가 한때 숭고하고 이상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는 어두운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희극성'은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심혈을 기울인 글들조차, 아마 훗날 제 가족을 짓눌렀던 바로 그 거짓의 성을 쌓는 데 보탬 벽돌 몇 장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비극적인' 부분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극적인' 부분... 그것은 바로 그 환상과 맹목에 대해 치러야 했던 대가입니다. 가족의 붕괴, 안연의 억울한 죽음입니다. 제가 한때 추구했던 모든 믿음과 가치의 몰락입니다.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된 후에야 진실을 깨달은 뒤늦음입니다.

비극은, '사상' 업무를 담당한다고 여겨졌던 제가, 인간과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그토록 공허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였던 제가, 제가 한때 비록 무심결이었을지언정 그 일부였던 악의 손아귀에서 제 유일한 딸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비극은, 제가 딸을 위한 정의를 찾으려 애썼을 때, 그제야 그 체제 안에서 '정의'란 사치품, 또 다른 희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깊은 피로감이 얼굴에 드러나며 한숨을 쉬었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비희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의 한 배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순진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또한 그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을 배역이겠지요. 제 인생 무대의 낡은 장의 벨벳 커튼이 내려가고, 여기, 이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저는 돌이켜보며 오직 비통함과 후회만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마도, 비희극 속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과 양심, 그리고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에 대한 대가에 대한 교훈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 남은 인생이 더 이상 운명의 장난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소피아 벨:

네, 과거는 지나갔고 되돌릴 수 없겠지요... 하지만 만약, 네, 저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만, 만약 선생님께 2~3 년 전 과거로 돌아가 한 가지를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따님이나 아내분을 위해... 그분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선생님의 가족 배경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데, 너무 민감하거나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면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류사원:

(소피아의 질문을 듣고,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깊은 사색에 잠긴 채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의 손이 가볍게 쥐어졌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곳을 건드리는 질문이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가...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그는 거의 속삭이듯 그 말을 되뇌고는, 무겁게 짓눌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소피아 씨. 잠 못 이루는 긴 밤 동안, 외로운 순간들 속에서, 과거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그 '만약에'라는 질문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약간 멍해졌고, 마치 정말로 아득한 기억의 저편을 바라보는 듯했다.)

만약... 만약 제가 2, 3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안연(安然)이 아직 그곳에 있고,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그때로...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저는 단 1 초도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바꾸고 싶은 단 한 가지는, 제 경력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제 딸에 대한, 그 아이의 신념에 대한 저의 태도와 행동입니다.

저는... 저는 자리에 앉아, 진심으로 안연의 말을 들어줄 겁니다. 그 아이가 파룬궁(法輪功)에 대해, 자신이 느낀 좋은 점들에 대해, 그 아이가 추구하는 진(眞)·선(善)·인(忍)의

가치에 대해 말하는 것ですよ. 저는 "그 아이의 미래를 걱정해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버려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충고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체제에 의해 너무 오랫동안 세뇌된 자의 모든 편견과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릴 겁니다.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알아볼 겁니다. 제가 나중에, 너무 늦게서야 인연이 닿아 읽게 된 『전법륜(轉法輪)』이라는 책을 읽을 겁니다. 저는 왜 그렇게 온화한 수련법이 정부를 그토록 두렵게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아이의 편에 설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 아이가 신념을 버리도록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의 정당한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싸울 겁니다. 어떤 일에 직면하더라도,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의 안전과 행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다시 그의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는 바로 닦아내지 않았다.)

제 아내에 대해서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더 부드럽지만 그에 못지않게 깊은 또 다른 슬픔이 떠올랐다.)

제 아내, 이름은 수취안(淑娟)이었습니다. 온화한 여성이었고, 헌신적인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10 여 년 전, 안연이 겨우 열한 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녀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고, 더 많이 나누는 것일 겁니다. 그때 저는 제 경력과 '원대한 이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종종 가장 평범하고 가까운 것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수취안은 매우 맑은 영혼을 가졌고, 직관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녀에게 더 마음을 열었다면, 그녀는 제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고, 제가 모든 것을 더 균형 있게 보도록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모든 사랑을 안연에게 쏟아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고통이 더욱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가족 배경에 대해서는... 그리 특별하거나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평범한 작은 가족이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제 부모님은 순박한 농부들이셨습니다. 저는 외아들이었고요. 수취안이 세상을 떠난 후, 저와 딸, 둘만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안연은 어릴 때부터 아주 속이 깊고 착했습니다. 공부도 아주 잘해서 수도의 명문 대학에 합격했지요. 그것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리적 거리감, 그리고 아마도 당시의 인식 차이가, 풍파가 닥쳤을 때 제가 제때에 그 아이를 이해하고 보호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끝없는 후회가 담긴 한숨을 쉬었다.)

만약에... 만약에 제가 다시 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이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남은 것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뿐이고, 우리의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소피아 벨:

즉, 따님이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따님을 제때에 이해할 기회를 놓쳤고, 따님을 도울 구체적인 방안도 없으셨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만약 선생님께서 정부 관리가 아니었다면, 만약 정치적 경쟁자들이 없었다면, 따님도 그런 비극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말의 의도는, 따님이 어느 정도는 선생님께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하신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류사원:

(소피아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듣자,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주름이 더 깊게 패였다. 그는 씁쓸한 인정을 담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소피아 씨. 안연이 처음 제게 파룬궁 수련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의 당시 반응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았고, 한 관리의 두려움으로,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힌 편견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미래'를 걱정했고, 그것이 제 경력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했으며, 선전체제가 심어놓은 모호한 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안연처럼 똑똑하고 분별력 있는 소녀가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알아보려 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저는 비록 부드럽게 보이려 애썼지만, 서둘러 말리고 심지어 다소 강압적으로 굴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동행하고, 아이를 이해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입니다. 당시 저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도울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저의 좁은 시각에서 아이가 '안전'해지는 방법, 즉 파룬궁을 포기하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소피아의 두 번째 질문은 그가 역시 마주해야 했던 또 다른 측면, 잔인한 진실을 건드렸다.)

제 딸이 제가 휘말린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억눌린 분노가 역력했다.)

이것은 나중에, 모든 것이 터지고, 한 옛 부하 직원이 목숨을 걸고 제게 전말을 알려주었을 때, 제가 고통스럽게 깨달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안연은, 어느 정도는, 제 정치적 경쟁자들이 저를 이용하고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장기말로, 약점으로 이용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제가 더 높은 직위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알았을 때, 그들은 저를 끌어내릴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탄압이 맹렬하게 진행되던 상황에서 안연이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일을 크게 만들고, 상부에 보고하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안연이 그렇게 신속하고 단호하게 체포되고, 그 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당에서 제명되고 모든 직위를 잃게 된 것은,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저를 정계에서 제거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눈빛에 선명했다.)

당시 저는 전문 업무와 제 '이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관가의 음모와 술수에 대해 충분히 민첩하지도, 경계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저의 승진, 저의 '무계파'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일을 잘하고, 헌신하면 인정받을 것이라고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연... 제 무고한 딸은... 아버지의 그 정치적 둔감함과 순진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관리'가 아니었다면, 만약 제가 그들의 '표적'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아마도 안연은 그렇게까지 주목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빠르고 잔혹하게 표적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록 파룬궁 탄압은 현실이었고, 수련하는 사람은 누구나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딸의 경우는 분명 저를 겨냥한 정치적 요인 때문에 더 빨리, 더 심각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는 끝없는 비통함이 담긴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씁쓸한 진실이며,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의 짐입니다. 저는 체제의 사악함으로부터 딸을 지키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무심코 그 아이를 더러운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정말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소피아 씨. 그리고 알아차렸을 때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소피아 벨:

네, 지난 20 여 년간 파룬궁이 탄압받아온 상황은 저도 알

고 있습니다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거의 100%가 감시를 받기는 하지만 모든 수련생이 공안에 체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그들이 어떤 특정 사례들, 예를 들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련생이나, 그들이 '완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혹은 선생님의 따님과 같은 다른 특별한 경우들만 겨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류사원:

(소피아의 분석을 들으며,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소피아 씨. 당신의 관찰은 제가 나중이야 비로소 알아보고 깨닫게 된 실제 상황과 매우 가깝습니다. 파룬궁 탄압은, 비록 전면적이고 잔혹한 성격을 띠지만, 그 실행 방식에는 분명 어떤 '전술'과 '중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수련생이 즉시 체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0%가 감시 대상이 되고, 관리를 받으며, 여러 가지 수준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찰 지역 공안의 잦은 '방문', 직장에서의 압박, 이동 제한에서부터 책과 자료 압수, 가족에 대한 협박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그들이 매일 살아야 하는 긴장되고 숨 막히는 분위기였습니다.

체포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종종 '대표 사례'를 겨냥했습니다.

우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역 수련생 그룹의 '조정자'나 '책임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체포함으로써, 그들은 수련 그룹을 와해시키고, 연락을 차단하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문, 회유,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전향'(즉, 수련을 포기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며 심지어 파룬궁을 비방하는 것)을 거부하는 수련생들입니다. 그들은 '완고한 분자'로 간주되어, 본보기로 삼기 위해 가혹하게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매우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강제 노동 수용소, '세뇌' 센터에 장기간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목소리를 내고 진실을 폭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탄압과 고문, 박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용감하게 수집하여 해외로 보내거나 국내에 유포하려는 수련생

들입니다. 그들은 정부가 특히 증오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을 막으려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딸 안연(安然)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 아이는 '조정자'도 아니고 수련생 커뮤니티에서 그리 눈에 띄는 역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표적'이 된 관리의 딸이었습니다. 안연을 체포한 것은 여러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에게 경고하는 동시에, 저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상급자의 환심을 사고 싶은 자들에게는 보고할 '실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씹쓸함이 역력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에게는 거대하고 정교한 감시, 감독 체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명단을 작성하고, 수련생을 분류합니다. 그들은 '전향'이나 체포에 있어 달성해야 할 '할당량'이 있습니다. 때로는 체포가 무작위적이거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혹은 '집중 단속' 기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이 단지 도구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감시가 없는 시스템 안에서는, 그들이 '문제 있다'고 여기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자의적이고 잔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 딸 안연은 아마도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었을 겁니다. 우수한 학생, (비록 일부 실세는 잃었지만) 관리의 자녀,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아이. 그 아이는 공을 세우고 싶어 하는 자들과 저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완벽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아득하고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소피아 씨. 한쪽은公安, 비밀경찰, 감옥, 언론을 갖춘 거대한 국가기관 전체이고, 다른 한쪽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오직 진(眞)·선(善)·인(忍)에 대한 믿음만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안연과 같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소피아 벨:

위에서 나눠주신 말씀의 의도가 아직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만약 선생님께서 따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아이의 수련을 지지하며, 심지어 직접 함께 수련하셨다면... 따님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혹은 선생님께서 더 많은 '정치적 경험'이나 '정치적 감각'을 가

지고 경쟁자의 진짜 얼굴을 꿰뚫어 보고 그들의 음모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들과 타협하거나, 심지어 자발적으로 정계에서 물러나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명확한 해결책이 있었을까요?

류사원:

(소피아의 가정 석인 질문을 듣고, 그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그 역시 많이 고뇌하고 괴로워했던 것들이었다. 그는 손가락을 깎지 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시는군요, 소피아 씨, 제 인생이 가지 않았던, 혹은 갈 수 없었던 '갈림길'을 건드리는 질문들입니다. 그런 가정된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훨씬 더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것과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나눠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제 딸을 더 잘 이해하고, 딸의 수련을 지지하며, 심지어 함께 수련했다면...

(슬픈 미소가 그의 입가에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아름답지만, 또한 큰 도전이 따르는 '만약'입니다.

우선 정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 부녀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같은 수련의 길을 걸었다면, 우리 사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거대한 정신적 힘의 원천이 되었을 겁니다. 안연은 외롭지 않았을 것이고, 저 역시 삶의 진정한 평안과 의미를 더 일찍 찾았을 겁니다.

보호에 관해서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첫째로, 저는 더 신중했을 겁니다. 탄압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우리는 모든 행동에 더 신중했을 겁니다. 아마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수련하지 않고, 책과 자료를 더 조심스럽게 보관하며,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했을 겁니다.

둘째로, 비록 희박하더라도 법적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중국의 법이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만, 미리 준비했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용감한 인권 변호사들(비록 그 수가 매우 적고 그들 역시 수많은 위험에 처해있지만)을 찾아가 조언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셋째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더 일찍 나라를 떠날 방법을 생

각해야 했을 겁니다. 고향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는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안전과 신앙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둔다면,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저는 진실을 폭로했을 겁니다. 기회와 준비가 되었다면, 탄압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조용히 수집하여 국제 사회에 알리는 것 또한, 비록 매우 위험하지만,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 정부가 어느 정도는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더 많은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경쟁자의 음모를 꿰뚫어 보았다면... 이것은 또 다른 상황으로, 권력 투쟁의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아마 정계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제가 단지 장기말에 불과하고, 저의 '깨끗함'과 '무계파'적인 성향이 오히려 약점이 되며, 그 투쟁이 가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저는 아마 일찍 물러나는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덜 중요한 자리로 전보를 신청하거나, 심지어 정치의 길을 포기하고 순수한 연구나 교육 업무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특히 안연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을 겁니다.

타협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려운 선택이고 제가 할 수 있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타협이 제 도덕적 원칙에 어긋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타협'(예를 들어, 너무 눈에 띄지 않고, 그들과 권력을 다투지 않는 것)이 저와 가족의 평안을 도울 수 있었다면, 마음은 원치 않더라도 고려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상, 어떤 '타협'도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동맹을 찾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계에서 모두가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현 상황에 마찬가지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다면, 연대를 통해 어느 정도의 균형추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비록 매우 어렵고 위험하지만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 그와 동시에 탈출로를 준비하는 것, 즉 '플랜 B'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했을 겁니다. 상황이 너무 위험해질 경우 나라를 떠날 길을 찾는 것이지요. 정치적 감각은 단지 대처하기 위함이 아니라, 목숨과 더 중요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언제 '도망쳐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말은 쉽습니다, 소피아 씨. 수많은 압박, 혼란스러운 정보, 복잡한 얽힘 속에 있는 실제 상황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만약 제가 다시 할 수 있다면, 저는 안연의 안전과 행복, 그 아이의 신앙의 자유를, 제가 한때 추구했던 모든 경력에 대한 야망이나 헛된 '이상'보다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야말로 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감각'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삶은 달라졌을 것이고, '지위'도, '권력'도 없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끝없는 괴로움과 후회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소피아 벨:

네, 저도 실제 상황 속에서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위에서 가정한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따님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그 아이의 신앙의 자유를 모든 경력에 대한 야망이나 '이상'보다 우선시하는 방안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

은...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결정이고, 그렇게 선택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사원:

(소피아의 말을 들으며, 그는 슬픈 미소가 깃든 얼굴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아득했고, 그 안에는 인간이 종종 마주해야 하는 선택에 대한 이해와 비통함이 담겨 있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소피아 씨. 개인적인 모든 야망과 미화된 '이상'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과 자유를 우선시하는 그런 결정은, 정말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사회, 즉 경력, 지위, '앞날'이 최우선으로 여겨지고, 작은 것을 큰 것을 위해, 개인을 집단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가르침받는 사회(물론 그 '집단'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런 곳에서는 말씀대로 그렇게 선택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혹은 아마도, 감히 그렇게 선택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색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체제 안에 있을 때, 저 역시 그런 사고방식을 목격했고, 심지어 그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 약

간의 더한 권력, 약간의 더한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 가족과 보내는 시간, 심지어 양심까지도 기꺼이 맞바꿉니다. 사람들은 뒤쳐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진취적인 의지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조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소용돌이는 사람을 휩쓸어가고, 눈을 멀게 하며,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점차 삶의 진정한 가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잊어버립니다. 자식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고, 가족은 경력을 위한 '후방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이 깃든 한숨을 쉬었다.)

저 역시 어느 정도는 그랬습니다. 저는 제 직업적 성취를 자랑스러워했고, 안연(安然)이 그 뒤를 이어주기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안연이 '다른' 길, 즉 그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위험하고' '미래가 없는' 길을 선택했을 때, 저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고, 그 아이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저는 제가 한때 추구했던 그 모든 '고상한' 것들, '야망', '이상'들이, 만약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무의미하고 덧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심 어리고 한결 편안해진 눈빛으로 소피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결정, 네, 그것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명예와 지위에 대한 환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대중의 흐름을 거스를 용기, 평범한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실패자'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깨어나서', 고통과 후회의 끝을 맛본 지금, 저는 만약 정말 다시 할 수 있다면, 주저 없이 그 희생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할까요? 높은 직위, 헛된 명성일까요, 아니면 딸의 미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평안일까요?

아마도, 너무나 큰 상실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무엇이 금이고 무엇이 낯쇠인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고 무엇이 일시적인 화려함에 불과한지를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비록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사랑과 양심을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비범한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ですよ. 그들이야말로 여전히 어두운 사회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빛줄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또한, 이야기되고 알려져야 합니다.

소피아 벨:

네, 그렇게 본다면, 선생님께서는 깨어나서 많은 것을 꿰뚫어 보셨을 때 그 선택을 하기가 더 쉬워지신 것 같군요...

하지만 독자들이 위에서 하신 말씀을 읽게 되면, 아마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왜 선생님은 파룬궁 경서를 읽고 세계관이 바뀌셨나요? 왜 선생님의 따님 같은 사람들은 금지되고 탄압받으며, 언제든지 체포되어 장기를 적출당할 위험이 도사리는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수련하는 건가요? 다시 말해, 파룬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만큼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요?

류사원:

(소피아의 질문을 듣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볍고 평온하지만 깊은 우수가 깃든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그는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이며,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심지어 의심할 만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피아 씨. 그것은 바로 제가 직접 알아보기 전에, 저 자신도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접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의 수련법이 사람을 그토록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맞서고 심지어 목숨까지 희생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하는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가장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왜 파룬궁 경서, 구체적으로 『전법륜(轉法輪)』을 읽고 세계관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완전히 변증법적 유물론자였고, 실증 과학을 숭상하며 영적인 것이나 신앙에

속하는 것을 '미신'으로 여기는 환경에서 교육받고 일했습니다. 제 세계관은 계급투쟁 이론, 역사의 직선적 발전,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의지로 자연과 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전법륜』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제 딸과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는지, 무엇이 정부로 하여금 그토록 결단력 있게 탄압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책은 제게 완전히 다른 세계, 제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우주관과 인생관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공이나 건강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원, 여러 다른 공간 차원, 신불(神佛)의 존재, 물질과 정신의 관계, 인간으로 사는 진정한 목적, 인과응보의 법칙, 윤회 등에 대해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처음에는 저 같은 유물론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 속의 설명들은 매우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으며, 현대 실증 과학이 여전히 손을 놓고 있거나 애써 회피하는 인생의 많은 큰 질문들에 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과학과 전혀 모순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법륜』은 사람들에게 우주의 기준인 진(眞)·선(善)·인(忍)에 따라 좋은 사람,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 원리들을 제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 즉 제가 목격하고 심지어 그 일부이기도 했던 거짓, 술수, 이기심, 다툼과 대조해보았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았습니다. 저는 파룬궁이 내세우는 도덕적 가치야말로 중국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약이며, 진정으로 문명화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강제적인 세계관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의 자연스러운 '계몽'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믿었던 유물론적 철학들은 갑자기 얕고 편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더 깊이, 더 다각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형의 물질적 현상 뒤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법칙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안연과 같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수련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몇 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파룬궁의 이로움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파룬궁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를 느낍니다. 질병이 완화되거나 사라지고, 마음이 온화하고 즐거워지며, 가족 및 사회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그런 좋은 점들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 그들의 믿음은 매우 확고해집니다.

둘째는 진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룬궁은 단지 건강을 위한 기공 수련일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대법(大法) 수련이며,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우주의 법칙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이며, 돌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도 그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매우 숭고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셋째는 진(眞)·선(善)·인(忍)의 힘입니다. 바로 이 원리들이 그들에게 탄압에 맞설 힘을 주었습니다. '진(眞)'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선(善)'은 그들이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자비심을 유지하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도록 돕습니다. '인(忍)'은 그들이 고난과 잔혹한 고문을 견디면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공동체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은 탄압의 진실을 알려, 사람들이 거짓 선전에 속지 않도록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좋은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굳건함이 악을 물러나게 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컨대, 소피아 씨, 파룬궁은 건강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깨달음, 정신적 승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줍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다소라도 고민하는 인생과 우주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들에 답을 줍니다. 바로 그런 크고 진실된 가치 때문에, 안연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체험에 바탕을 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제가 직접 알아보지 않았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소피아 벨:

네, 분석과 요약을 겸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선

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전법륜』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제 마음과 생각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독자들 중 다수는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없으실 테니, 몇 마디 짧은 나눔만으로 모든 분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더 이해하기 쉽고 생생한 표현 방식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직접 목격하시고 그들을 존경하게 된 파룬궁 수련생들의 행동, 말, 또는 사건 같은 것들이요... 따님이 체포되었을 때, 그분들로부터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셨나요?

류사원:

(소피아의 고민을 들으며,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련법의 깊은 가치를 아직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소피아 씨. 단지 몇 마디 분석만으로는 『전법륜』을 읽어본 적 없고, 수련생들을 만나본 적 없는 분들이 파룬궁의 깊이와 힘을 온전히 느끼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도 제가 직접 목격한 구체적인 이야기, 실제 행동들이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비극 이후 자신의 삶을 스쳐 지나간 기억들, 사람들을 회상하는 듯했다.)

안연(安然)이 체포된 후, 특히 제가 모든 직위를 잃고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한 후, 제 삶은 어둡고 절망적인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저는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전에 제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나, 심지어 그들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몇몇 파룬궁 수련생들이, 오히려 저를 먼저 찾아와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가장 먼저 존경심을 느낀 것은, 바로 그들의 용기와 사심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제가 한때 그들을 탄압했던 체제의 일부였음을 알았고, 저와 접촉하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책망하러 온 것도, 무언가를 요구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누고,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의 인내심과 자비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파룬궁과 탄압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결코 강요하려 하거나, 원한이나 증오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화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했고, 제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처음에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말을 할 때조차도, 끈기 있게 증거와 이치를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태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제가 진실을 깨닫도록 돕는 데에만 집중하는 듯했습니다.

안연이 체포되었을 때, 그들 역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몇몇 수련생들은 자신들의 얼마 안 되는 인맥을 동원해 안연의 소식, 즉 그 아이가 어디에 수감되어 있고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민감한' 사건을 기꺼이 맡아줄 용감한 인권 변호사 몇 분을 제게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무너져 내렸던 그 시절, 그들은 자주 저를 찾아와 약간의 음식을 가져다주고,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그저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중에는 평범한 노동자로 삶이 그리 넉넉지 않은 분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소박한 모습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바로 그들 중 한 분, 인상이 매우 후덕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제게 『전법륜』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면 제 마음의 평안과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강요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제안했을 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절망에 빠져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한 젊은 수련생이 제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류 선생님, 낙담하지 마세요. 빛은 결국 올 겁니다. 비록 늦게 올지라도, 우리는 정의를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굳게 지키고, 악이 우리를 그들과 똑같이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잔혹한 탄압에 직면한 젊은이의 그 말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수련생, 감옥에서 잔인한 고문을 당했던 나이 든 남성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만났을 때, 그는 전혀 원한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스스로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 관용은, 정말 제가 고개 숙여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런 행동과 말들은 비범한 내면의 힘,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선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진(眞)·선(善)·인(忍)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원리에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씨, 바로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의 얼어붙은 층을 서서히 녹였고, 제가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만들었으며, 마침내 진지하게 파룬궁을 알아볼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가장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도, 믿음과 선량함의 빛을 품은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빛이야말로, 가장 지속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소피아 벨:

그렇다면, 중공(中共)이 파룬궁에 대해 선전하는 내용과 비교했을 때, 선생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신 바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류사원:

(이 질문을 듣고, 그의 입가에 슬프고 다소 냉소적인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다르다"... 아마 그 단어로는 다 표현하기에 부족할 겁니다, 소피아 씨.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라고 해야 할 겁니다. 낮과 밤처럼, 흑과 백처럼요. 제가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실제로 경험하고 목격한 것,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직접 수련에 입문하며 느낀 것은, 중공이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거짓되고 날조된 선전과는 절대적으로 대립됩니다.

(그는 그 대립되는 점들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하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소위 "미신, 반(反)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중공의 선전은 파룬궁을 과학에 반하는 미신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치료를 거부하게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수련생들을 우매하고 낙후된 이미지로 만들려고 애씁니다.

제가 목격하고 경험한 현실은, 제 딸 안연처럼, 과학자, 의사, 엔지니어, 교수를 포함한 많은 수련생들이 지식인이고 높은 학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매해서가 아니라, 신중하게 알아보고 숙고한 후에 파룬궁에 입문했습니다. 저 자신도 과학 연구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전법

륜』을 읽었을 때 그 속의 설명들이 진정한 과학과 전혀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주와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
해를 열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룬궁은 심성(心性)
수련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드러운 공법을 연마하여 전반
적인 건강 개선을 돕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련 후 불치
병이 나았는데, 그것은 제가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코 현대 의학을 배척하지 않으며, 수련이 건강과 정신적
승화를 이루는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길임을 이해합니
다.

소위 "정치 조직, 정부 전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공은 끊임없이 파룬궁을 공산당 전복을 꾀하는 정치 조
직이며, '외세 적대 세력'의 조종을 받는다고 모함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명
분입니다.

제가 목격하고 경험한 현실은, 파룬궁이 정치 정당과 같은
엄격한 조직 구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원 명단도, 회비 징수도, 계급도, 사무실도 없습니다. 모
든 사람이 완전히 자발적으로 공법을 연마하고 법(法)을
배웁니다. 파룬궁 창시인이신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강의는 모두 공개되어 있으며, 오직 사람이 심성을 수련하
고 도덕을 높이도록 이끄는 데에만 집중할 뿐, 정부 전복

이나 반대를 선동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수련생들이 탄압에 반대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은, 박해받는 사람들의 정당한 자기방어 권리이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유로운 수련 환경을 바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중공의 비합리적인 탄압이야말로 그들을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소위 "사회 질서 교란, 위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공은 '텐안먼 가짜 분신자살 사건'과 같은 사건들을 조작하여 파룬궁을 비방하고, 수련생들에게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뒤집어씌워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낙인찍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경험한 현실은, 제가 접촉한 파룬궁 수련생들은 모두 온화하고 선량하며, 항상 진(眞)·선(善)·인(忍)의 원리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가족과 일에 책임감을 가집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구타와 고문을 당할 때조차도, 그들은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며 폭력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평화롭게 청원하고, 현수막을 들며, 진실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할 뿐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교란'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 불안과

두려움, 분열을 야기하는 것은 바로 중공의 탄압 기구입니다.

소위 "세뇌, 정신 통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공은 파룬궁이 수련생들을 '세뇌'하여 그들을 미혹시키고, 가족과 직장을 버리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목격하고 경험한 현실은, 파룬궁은 완전히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더 명석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삶의 의미를 더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수련생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일하며, 가족을 돌봅니다. 심지어 그들은 심성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되면서, 그러한 역할들을 더 잘 수행합니다. 누구도 믿으라고, 따르라고 강요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인식과 체험에 바탕을 둔 자발적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뇌'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왜곡된 정보와 까닭 없는 증오심을 주입해 온 중공의 선전 체제입니다.

(그는 슬픔이 깃든 한숨을 쉬었다.)

소피아 씨, 그 차이는 너무나 커서, 제가 한때 일부라도 믿었던 그 거짓말들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또한 선전 기구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것이 어떻게 흑을 백으로 바꾸고, 선량한 사람들을 많은 이들의 눈에 인민의 적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그 거짓 선전이 짙은 안개층을 만들어 진실을 가렸고, 그로 인해 파룬궁 수련생들과 다른 양심수들에 대한 장기 적출 범죄가 오랫동안 널리 폭로되지 않고 자행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록 어렵고 위험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소피아 벨:

네, 저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중공(中共)의 거짓 말들을 읽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압은, 현재까지 벌써 사반세기가 지났네요...

방금 머릿속에 새로운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현재 선생님께서 중국 현 지도자의 정책 고문이사라면,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저와 같은 기자의 외부 관찰자 시각에서는, 파룬궁 탄압에 대한 그의 명확한 관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가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태도는 마치 악을 모른 척 묵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류사원:

(소피아의 질문을 듣고,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깊은 사색과 복잡함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그는 마치 이것이 매우 난해한 문제, 천근만근의 짐인 듯 가볍게 관자놀이를 눌렀다.)

"만약 제가 중공 현 지도자의 정책 고문이라면..."

(그는 낮고 사색에 잠긴 목소리로 되뇌었다.)

이것은 매우 큰 가정입니다, 소피아 씨.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 즉 '탈주자'이자 그들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깨어난' 사람의 조언이 경청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는, 진지한 눈빛으로 소피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만약, 단지 '만약에',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지도자가 정말로 약간의 선한 마음과, 단지 권력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고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좋은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약간의 소망이라도 있다면, 저는 특히 파룬궁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과감히 할 것입니다.

첫째, 용감하게 진실을 마주하고 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는 그에게 지난 20 여 년간 지속된 파룬궁 탄압이 인류애, 도덕, 법치를 완전히 거스르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며 심각한 역사적 과오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백만 무고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적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에 두려움과 불신을 심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탄압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더 많은 적을 만들며, 다음 세대에 끔찍한 유산을 남길 뿐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체포, 고문, 감금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 적출 범죄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저는 그에게 파룬궁 수련생과 다른 양심수들에 대한 장기 적출의 진실 전체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할 것입니다.

이 범죄의 주모자와 실행자들은, 어떤 직급에 있든, 법 앞에서 공개적으로 엄정하게 재판받아야 합니다. 그 어떤 은폐나 묵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희생자들의 정의를 되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 양심에 대한 약간의 믿음이라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파룬궁 수련생들과 그 가족들이 잘못된 탄압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상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파룬궁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것이 건강과 사회 도덕에 이로운 온화한 수련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물질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 합당한 배상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저는 신앙의 자유가 (비록 형식적일지라도) 중국 헌법에도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국민이 파룬궁 수련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를 더 안정시키고, 도덕을 향상시키며, 국민이 국가에 더 큰 유대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국가는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는 국가가 아니라, 그들의 다양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입니다.

다섯째, 정치 및 법률 시스템을 투명하고 진정한 법치주의 방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파룬궁 문제는 시스템의 더 깊은 문제들의 한 가지 표현일 뿐입니다. 진정한 개혁이 없다면, 비슷한 비극은 계속해서 재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이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것 위에 서는 진정한 법치 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그리고 효과적인 권력 감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피곤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다.)

언급하신 현 지도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네, 명확한 관점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부적으로 어떤 '균형'을 유지하려 하거나, 그가 더 시급하다고 여기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악을 모른 척 묵인하는 것' 또한 악의 한 형태입니다. 역사는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감히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언들이, 현재 중국의 정치 상황에서는 '순진하다', '비현실적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나라를 거짓, 폭력, 불의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해야 할 올바른 일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 지도자가 이러한 변화를 실행할 충분한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위해 더 나은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건설하려는 '중국몽' 역시 진실과 정의라는 폭풍 앞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할까 두렵습니다.

소피아 벨:

네, 이해합니다. 이런 조언들은, 설령 금과옥조와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중공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론에는 강하지만 '정치적 감각'이 부족한 사람의 '비현실적인' 말로만 비치겠지요...

류 선생님, 어느덧 정오 12 시가 훌쩍 넘어 오늘 나눴의 시간이 길어졌네요.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내일 아침에 계속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류사원:

(소피아가 시간을 언급하자, 그는 슬쩍 시계를 보고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많은 것을 나눈 후 한결 편안해진 미소였다.)

오, 정말입니까? 벌써 정오가 넘었군요?

(그는 미처 몰랐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확실히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것을 털어놓고 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잊게 되나 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소피아 씨. "비현실적이다", "이론에는 강하지만 정치적 감각이 없다"... 아마도 그들이 만약 들을 기회가 있다면, 그런 조언에 대해 내릴 평가겠지요. 그리고 권력을 쥐고 그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는 감사한 표정으로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오전 내내 제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떤 것들은, 계속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견딜 수 없는 짐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내일 아침에 계속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마음을 좀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하고, 아마 당신도 휴식이 필요할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어쨌든 듣거나 소화하기 쉬운 것들은 아니니까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내일 오전 8 시에, 여전히 이곳에서 뵙는 것으로 할까요? 제가 새 차를 준비해두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생산적인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소피아 씨. 와주셔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온 마음으로 들어주셔서요.

소피아 벨: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희 THE LIVES MEDIA 기자 그룹에 줄리안 리라는 동료가 있는데, 그는 정치, 철학, 리더십 사상과 같은 주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원래 철학 교수이셨고, 그 후 중공(中共) 정부에서 정책과 노선을 전문으로 다루는 일도 하셨으며, 이제는 인생관에 대해 더욱 깊고 넓게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줄리안 리를 이곳에 함께 데려와 류 선생님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도 괜찮을까요?

류사원:

(소피아의 제안을 듣고, 그는 약간 놀란 듯 잠시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소피아를 바라보다가, 이내 사색에 잠긴 눈빛으로 바뀌었다.)

다른 기자, 정치, 철학, 리더십 사상을 전문으로 하는... 이름이 줄리안 리라고 하셨죠?

(그는 기억하고 숙고하려는 듯 되뇌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군요, 소피아 씨. 아시다시피, 우리의 나눔은 매우 개인적이고, 제가 오랫동안 애써 물어두려 했던 경험과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적지 않은 노력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의 식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말을 멈췄다.)

하지만, 당신의 의도도 이해합니다. 저의 과거, 저의 사색은 아마 줄리안 리 씨가 관심을 가질 만한 영역에 닿아있을 겁니다. 철학과 사상에 깊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우리가 아직 건드리지 못한 측면을 파고들거나, 혹은 제 이데올로기와 인식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독자들이 더 명확하고 조리 있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약간 살피는 듯한 눈빛으로 소피아를 올려다보았다.)

만약 줄리안 리 씨가 정말로 진심을 가졌고, 당신처럼 이 이야기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의 존재가 저의 '증언'이 THE LIVES MEDIA 의 독자들에게

게 더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전달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나눔의 진실성과 선한 목적입니다. 만약 그가 그런 정신으로 온다면, 아마도 그의 존재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줄리안 리 씨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그의 일하는 방식이나, 대표적인 작품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소피아 씨의 소개와 평가를 믿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의 성격과 우리가 하려는 일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느끼신다면, 저는 내일 아침 두 분과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소피아 벨:

네, 이해합니다, 류 선생님... 선생님께서 작은 다리 역할인 저를 통해 THE LIVES MEDIA 의 독자들과 나누시는 이야기는, 개인적이고,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일들과 중공의

악함, 그리고 파룬궁의 아름다움에 대한 마음속 깊은 곳의 나눔이라는 것ですよ...

제 생각에, 내일은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의 몇몇 측면을 더 명확하고 생생하게 만드는 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제 아이디어는 선생님께서 평생을 바쳐 연구하셨고, 수련에 입문하며 법리(法理)의 빛을 받아 세계관이 더욱 넓게 열리셨을 주제인, 중국의 미래의 길에 대해 더 나눠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줄리안 리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관심을 가지는 인간상, 사상, 그리고 분야에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 의도는 순수하게 마음이 통하고 진정한 의미의 '동지(同志)'인 두 분의 만남을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류사원:

(소피아의 설명과 아이디어를 듣자, 그의 얼굴이 점차 부드러워지며, 가볍고 이해와 존중이 담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피아 씨, 당신은 제가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의 정신을 아주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앉아있는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진실을 말

하고,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는 동시에, 제 딸과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이 굳건히 지켜온 파룬궁의 아름다움과 올바름을 세상이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나누었던 것들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하고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숙고하는 눈빛으로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줄리안 리 씨를 다음 부분, 즉 우리가 중국의 미래의 길에 대해 논의할 때 참여시키고 싶다는 당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는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되뇌었다.)

이것은 정말 제가 젊은 연구자 시절부터 정계에 입문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법리(法理)에서 배운 것들로 제 시각에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변화와 깨달음이 생긴 지금까지, 제 평생을 고민하고 사색해 온 주제입니다.

만약 줄리안 리 씨가 정말로 같은 고민을 하고, 올바른 미래의 길을 찾고자 하는 같은 열망을 가졌으며, 이 문제들

에 대해 저와 더 깊은 차원에서 토론할 수 있다면 – 단순히 정치, 경제 분석뿐만 아니라, 도덕, 영성, 전통 가치의 부흥과 같은 요소들까지도요 – 그렇다면 그의 존재가 분명 어떤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동질감'을 느꼈고, 진정한 의미의 '마음이 통하는 동지'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하셨죠...

(그는 고향에서 너무나 다른 색깔로 변질된 '동지'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슬픈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거짓과 개인의 이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정으로 뜻을 같이하고, 선을 향한 같은 마음을 가졌으며, 인류를 위해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은 지극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 소피아 씨, 당신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내일 오전 첫 부분을 미처 다루지 못한 것들을 명확히 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 후에, 당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면, 저는 줄리안 리 씨를 만나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진 문제들에 대해 기꺼이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진행 아래 줄리안 리 씨처럼 '주파수'가 맞는 사람과의 대화는, 우리 모두와 독자들에게 흥미롭고 깊이 있는 시각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당신의 안배와 선한 뜻을 믿습니다.

소피아 벨:

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류 선생님!

류사원:

(인터뷰 시작 때보다 한결 편안해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피아 씨.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의미 있는 아침을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소피아를 문까지 배웅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약간의 우수가 서려 있었지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둘째 날

[배경: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류사원 씨의 아늑한 거실. 류 씨는 새 차를 준비해두었고,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돈다. 소피아 벨이 먼저 도착하고, 잠시 후 줄리안 리도 도착한다. 류 씨는 문까지 나가 정중하게, 하지만 여전히 특유의 사색적인 모습을 유지하며 줄리안과 악수한다.]

소피아 벨 (Sophia Bell):

좋은 아침입니다, 류 선생님. 이 중요한 나눔을 위해 계속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류 선생님, 어제 저희가 합의한 대로, 오늘은 정치 및 인권 문제 전문 기자인 THE LIVES MEDIA 의 제 동료, 줄리안 리 씨가 함께합니다.

줄리안,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류사원 선생님이십니다.

류사원:

(어제보다 안색이 조금 더 밝아졌지만, 여전히 우수가 깃들어 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줄리안 씨. 두 분 모두 들어오시죠. 차를 준비해두었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는다. 류 씨가 손님들에게 차를 따른다.)

줄리안 리 (Julian Lee):

(나, 줄리안의 목소리로, 정중하고 전문적으로)

환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류 선생님. 집이 정말 조용하고
아늑하네요. 소피아에게 어제 선생님의 나눔에 대해 많이
들었고, 오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정말 기대가 큼니다.

소피아 벨:

어제는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버지, 한 남자,
그리고 전직 중공(中共) 관리로서의 심경으로 하시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파룬궁 수련에 입문하신 지 현재까지 약
1 년 반에서 2 년 정도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
로, 수련인들은 보통 삶과 사건을 온화하고 평온하면서도,
깊이 있고 명료하게 바라보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나눔에서는, 저희가 수련인의 심경으로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제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류사원:

(소피아의 제안을 듣고, 그는 가볍고 평온한 미소를 띠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소피아 씨, 아주 흥미롭고 깊이 있는 제안입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수련의 길에 들어서면, 그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매우 큰 변화가 생깁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 삶의 굴곡에 대처하는 방식 또한 많이 달라지게 되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소피아와 줄리안을 보았다.)

네, 저는 인생의 큰 비극을 겪은 후 파룬궁 수련에 입문할 인연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 2 년 가까이,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지만, 제가 이 법(法)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은 제 자신을 뿌리부터 정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지식인이자 사상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여전히 세속의 득실과 승패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행한 일을 만나면, 원망, 고통, 절망에 쉽게 빠졌습니다. 약간의 성취가 있으면, 자만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수련을 시작한 후, 저는 점차 더 넓고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으며,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어야 했던

고난들은, 비록 극도로 고통스러웠지만, 또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관념을 씻어내며, 말씀하신 대로 '깨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안을 향해 찾는 법, 즉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 먼저 제 자신에게 잘못된 점은 없는지, 없애야 할 좋지 않은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풍파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제 자신을 나날이 더 좋게 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파룬궁이 가르치는 진(眞)·선(善)·인(忍)의 원리는 제 모든 생각과 행동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진실하게 살고,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며, 역경을 만났을 때 인내할 줄 아는 것 – 이것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지극히 심오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러니, 소피아 씨, 줄리안 씨, 저는 기꺼이 수련인의 심경으로 두 분과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저 자신과 제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나라의 중대한 문제들까지도 이 시각으로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이해와 더 깊은 성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실된 마음과 법(法)에서 깨달은 바로서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소피아 벨:

네, 어제 나눔을 통해, 따님에 대한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 파룬궁 탄압, 선생님의 길과 경력, 그리고 각박하고 음험한 관료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수련인의 심경으로 이러한 점들을 언급하시는 것은, 불행한 사람이 위로를 구하기 위해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수호하고, 악을 폭로하며, 선을 기리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류사원: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여전히 굳건함이 깃들어 있었다.)

소피아 씨, 제 마음속 생각을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제가 여기에 앉아 이 이야기들을 나누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을 늘어놓거나, 동정이나 위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련인에게는 더 이상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소피아와 줄리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람이 수련의 길, 특히 진(眞)·선(善)·인(忍)의 원리에 따른 대법(大法) 수련에 들어서게 되면, 자신이 겪어야 하는 고난과 불공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 또한 심성을 연마하고, 과거에 지은 업력을 갚으며, 자신의 경지를 높이는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업력을 더할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연(安然)의 이야기를 다시 할 때, 자식을 잃은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결코 희미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단지 제 가족만의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딸과 수백만의 다른 파룬궁 수련생들은, 거짓과 증오에 기반한 잔혹하고 부당한 탄압의 희생자입니다. 그들은 단지 좋은 가치, 진(眞)·선(善)·인(忍)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신세 한탄'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목적 때문입니다.

첫째, 탄압과 중국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세상이 그들이 저질렀고 또 저지르고 있는 범죄, 즉 중상모략과 날조에서부터 고문, 살인, 심지어 끔찍한 장기 적출 범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악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폭력과 거짓에 기반한 정권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둘째, 정의와 진실을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진실은 알려져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는 되찾아져야 합니다.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바로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셋째, 파룬궁 수련인들의 아름다움과 굳건함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어둠과 잔혹함 속에서도, 선량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떠한 폭력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비범한 인내와 자비심, 그리고 굳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아름다움이며, 진정한 수련인의 아름다움입니다.

넷째,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제가 목격한 것들을 통해, 중국과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고, 숙고하며, 더 이상 거짓 선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선한 생각은 지극히 소중하며, 그것은 반드시 일깨워져야 합니다.

(그는 평온하지만 힘이 깃든 미소를 지었다.)

수련인의 관점에서, 저는 악을 폭로하는 것이 증오를 퍼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명확히 인식하여 선량함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임을 압니다. 그것 또한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 소피아 씨, 줄리안 씨, 저는 바로 그 심경으로, 기꺼이 나눔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비록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진실을 밝히고 좋은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피아 벨:

네, 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줄리안에 대해서... 동료로서 저는 그가 철학, 리더십 사상, 국가 정책이나 체제 같은 주제를 탐구하는 데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의 경전을 부지런히 찾아 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가 파룬궁 경서를 즐겨 읽으며, 파룬궁에 대해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눔에 도

(道)를 찾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종교적인 관점으로 참여하시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줄리안 리:

(소피아가 자신이 파룬궁 경서를 읽는 것을 언급하자 처음에는 약간 놀랐지만, 이내 열린 마음과 진솔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피아. 정치 및 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로서의 일 외에, 개인적으로도 철학적 문제, 사상 체계, 그리고 특히 사회와 인간 행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정신적 가치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류 선생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알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세계 주요 종교의 경전들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가 말했듯이, 저 역시 『전법륜』을 포함한 파룬궁 경서를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것들은 제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는 파룬궁이 내세우는 원리와 가치에 대해 진심으로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깊은 차원에서, 많은 종교와 진정한 수련 법문들이 모두 인간을 선량한 가치로, 자기완성을 향해 이끌며, 일상적인 물질적 근심을 넘어선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줄리안은 진지한 표정으로 소피아와 류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러므로, 소피아 씨, 류 선생님, 저는 오늘 나눔에 단지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도(道)를 찾아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논의하는 사건과 문제들의 더 깊은 의미의 층위를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단지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보편적 원리, 도덕적 가치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대화는 더욱 풍부해지고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우 특별한 실제 경험을 하셨고 이제 수련의 길을 걷고 계신 류 선생님께서 그 관점에서 나누시는 것을 듣는 것은, 제게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러한 가치를 알아가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관점에서 제 생각

과 질문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소피아 벨: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나눔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공(中共)의 악함에 대한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찾아보면, 중공이 저질렀던 끔찍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1989 년 톈안먼 사건과 1999 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파룬궁 탄압이 있습니다...

관찰자의 시각에서 이 두 사건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류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류사원:

(소피아의 질문을 듣고, 그의 얼굴에 슬프고 사색적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말을 꺼내기 전 한참 동안 앞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억과 성찰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소피아 씨, 줄리안 씨, 돌이켜보면 두 사건 모두 비극적인 이정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1989 년 톈안먼 사건에 대해서는, 그때 저는 대학 2 학년 혹은 3 학년이었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얼마 전, 스무 살에 저는 영광스럽게도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당의 교육과 지도 속에서 자라며, 당의 대열에 서는 것을 자부심이자 큰 인정으로 여겼던 당시의 저 같은 젊은이에게는 그랬습니다. 당시 제 사상은 당의 영도와, 국가가 추구하던 사회주의 노선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 운동이 터졌을 때, 젊은 당원이자 당의 안정과 영도적 역할을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주로 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접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은 소수의 학생들이 '선동'되어 '부적절한' 요구를 하고, '폭동'을 일으켜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당시 저는 대다수 학생들의 요구의 진정한 본질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군대가 동원되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저는 단지 '질서 유지'와 '혁명 성과 수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단순하게 이해했습니다. 사상자에 대한 이미지나 숫자

는... 거의 완전하고 객관적으로 저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부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졸업하고 강사가 된 후, 그리고 정계에 입문한 후에도, 텐안먼 사건은 거의 금기 주제가 되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省)급 관리가 된 후에도, 그 사건에 대한 상세하고 다각적인 정보는 여전히 제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나중이야, 제가 미국에 와서 검열되지 않은 역사 자료, 증인들의 증언과 같은 자유로운 정보 출처에 접근할 기회를 갖고 나서야, 저는 텐안먼에서 일어났던 일의 규모와 잔혹함을 깨닫고 정말로 경악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망명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전적으로 제 개인의 잘못은 아니고, 정보 봉쇄 시스템과 젊은 시절의 다소 맹목적인 믿음의 결과일 수 있겠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저 자신의 무지와 무관심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파룬궁 탄압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나누었던이, 저의 인식 과정 또한 비슷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일방적인 선전을 믿는 것에서부터, 무관심으로, 그리

고 가족에게 비극이 닥쳤을 때의 초기 의심,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알아보고 수련에 입문했을 때의 완전한 '각성'에 이르기까지요.

텐안먼 사건과 비교했을 때, 파룬궁 탄압은 아마도 훨씬 더 정교하게 은폐되었고, 조용하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규모로 지극히 잔혹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장기 적출이라는 참상에 대해서는, 벌어지고 있는 범죄들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 이 두 사건은, 독재 정권이 어떻게 정보를 통제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적어도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제가 너무 늦기까지 제 인생의 대부분 동안 하지 못했던, 진실을 찾고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정보의 '안개' 속에 있었고, 당에 대한 초기의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의 관점에서 이 두 사건을 돌이켜볼 때의 제 소감입니다.

소피아 벨:

네, 그럼 줄리안,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줄리안 리:

(줄리안은 류 선생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듣다가, 소피아가 이야기를 요청하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전문적인 자세로 똑바로 앉았다.)

감사합니다, 소피아 씨. 그리고 매우 진솔하고 깊이 있는 나눔을 해주신 류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수년간 중국의 정치 및 사회 동향을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저 역시 이 두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소견이 있습니다. 아마 몇 가지 측면을 더 보충할 수 있을 겁니다.

1989 년 톈안먼 사건에 대해서, 국제 사회와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그들의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 진짜 얼굴을 드러낸 어두운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톈안먼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계산된 잔혹성입니다. 이 탄압은 단지 우발적인 반응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완전히 진압하고 미래에 비슷한 의도를 가진 누구에게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최고 지도부에서 신중하게 계산된 결정의 흔적을 보
입니다. 이는 중공(中共)에게 있어, 국민의 생명과 염원보
다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의, 즉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는)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
다.

둘째, 정보 봉쇄와 왜곡 선전입니다. 사건 직후, 중국의 선
전 기구는 진실을 왜곡하고, 평화 시위대를 '폭도', '반혁명
분자'로 매도하며, 실제 사상자 수를 은폐하기 위해 총력
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류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한동안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국제 여론의 일부까
지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독재 정권이 정
보의 흐름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예입니
다.

셋째, 장기적인 후과입니다. 텐안먼 사건은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수년간 잠재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지도 세
대가 어떠한 정치적 반대 의견의 표출에도 더욱 경계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개혁 사상을 가진
많은 지식인들이 침묵하거나 나라를 떠나게 만들었습니
다.

1999 년부터 시작된 파룬궁 탄압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그들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온화한 집단에 대한, 정신적으

로,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자행된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집단 학살적 성격을 띤 캠페인으로 봅니다. 이 탄압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정권의 비합리적인 두려움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이 수련하는 파룬궁의 빠른 성장과, 본질적으로 어떤 선량한 정부와도 충돌하지 않는 진(眞)·선(善)·인(忍)이라는 도덕적 가치 체계가, 중공(특히 당시 장쩌민)에게는 사상적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독립적인 정신적 세력이 그들의 이데올로기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둘째, 탄압을 위한 국가기관의 동원입니다. 중공은公安, 법원, 감옥에서부터 언론 매체, 대중 단체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 전체를 동원하여 탄압을 실행했습니다. 탄압을 지휘하고 집행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전문 기구인 '610 판공실'을 설립한 것은, 그들의 심각성과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셋째, 증오 선전과 희생자의 비인간화입니다. 가장 잔혹한 전술 중 하나는 언론을 이용해 파룬궁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여, 대중들 사이에 수련생들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자를 '사교(邪教)', '인간이 아닌 존재'로 비인간화하는 것은, 사회적 양심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고문과 살해 행위가 자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집단 학살 정권의 고전적인 전술입니다.

넷째,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우리가 언급했고 앞으로 더 깊이 논의하겠지만, 잔혹한 고문, 불법 감금, 그리고 특히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생들로부터의 장기 적출에 대한 증거들은 모든 범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중국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규탄과 개입이 필요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제 생각에, 중공의 일관된 행동 패턴을 보여줍니다. 즉, 도전을 받거나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과 거짓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은폐의 정교함과 잔혹성의 규모일 뿐입니다.

그리고 류 선생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정보 통제는 그들의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것은 국내 국민을 속일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가 진실에 접근하고 시의적절하며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언론인, 감히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소피아 벨:

그렇다면, 이 두 끔찍한 사건이 모두 한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류사원:

(소피아의 질문을 듣고, 그는 가만히 눈살을 찌푸렸고, 날카로운 시선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 씨, 당신의 질문은 매우 직설적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봤을 법한 지점을 건드리는데요. 이 두 사건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핵심적인 결정들과 흔적들이 권력 최상층의 특정 개인 몇 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1989 년 텐안먼 사건에 대해서는, 무력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덩샤오핑의 역할이 많은 역사 분석가들에 의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어 총서기 자리에 오른 사람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 장쩌민이었습니다. 텐안먼 사건이 그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 년 후인 1999 년, 바로 그 장쩌민이 당, 국가, 군대의 수장으로서, 정치국 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발동하고 지휘했습니다. 그는 이 캠페인을 집행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특별 기구인 610 판공실을 설립했습니다.

관찰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나중에 진실을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치 뿌리 깊은 두려움, 질투심, 그리고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욕망이 그 결정들을 추동한 것 같습니다.

텐안먼 사건에서는, 아마도 통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구세대 지도부 전체의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장쩌민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파룬궁 탄압에서는, 많은 분석가들이 그것이 파룬궁의 빠른 성장과 명성에 대한 장쩌민 개인의 질투심, 그리고 진(眞)·선(善)·인(忍)에 기반한 사상 체계가 당의 이데올로기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 탄압을 관리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자신의 파벌을 공고히 하며, 다른 내부 문제로부터 여론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이든, 권력 통제 메커니즘이 부족한

시스템에서, 독재적인 지도자의 개인적인 결정이 한 민족 전체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는 그것을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줄리안 리:

(줄리안은 류 선생님의 분석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날카롭게 덧붙였다.)

류 선생님께서 매우 정확하게 분석하셨습니다. 언론과 정치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사건에서 장쩌민의 역할은, 비록 직접적인 정도는 다르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텐안먼 1989 년: 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쩌민은 가장 큰 정치적 수혜자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온화한 태도를 보였던 자오쯔양을 대체하기 위해 그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사건 이후 당내 보수파가 원했던 강경 노선에 장쩌민이 '적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그의 이후 리더십 스타일을 형성했습니다.

파룬궁 탄압 1999 년: 이것은 명백히 장쩌민의 개인적인 흔적이 짙게 묻어나는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내부 소식통과 국제 분석가들은 모두 장쩌민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내

다른 위원들로부터 반대 의견, 심지어는 암묵적인 반대에 직면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온화한 대규모 민중 집단을 탄압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쩌민은 개인적인 권력, 군부와 안보 기구 내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당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자극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습니다.

장쩌민이 했다고 알려진 "나는 공산당이 파룬궁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그의 호전성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탄압을 발동한 것은 또한 장쩌민이 권력 이양 전에 자신만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고, 권력을 공고히 하며, 자신의 파벌을 심는 방법으로도 여겨집니다.

한 개인, 특히 최고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이처럼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에 관련되는 것은, 독재 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권력을 한 사람이나 소수 집단의 손에 집중시키는 것, 감시와 반론 메커니즘, 권력 균형이 부재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를 국가 이익, 국민의 생명과 자유보다 위에 둘 수 있을 때, 텐안먼이나 파룬궁 탄압과 같은 비극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

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또한, 역사적 정의를 찾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피아 벨:

네, 그럼 줄리안,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줄리안 리:

(줄리안은 류 선생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듣다가, 소피아가 이야기를 요청하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전문적인 자세로 똑바로 앉았다.)

감사합니다, 소피아 씨. 그리고 매우 진솔하고 깊이 있는 나눔을 해주신 류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수년간 중국의 정치 및 사회 동향을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저 역시 이 두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소견이 있습니다. 아마 몇 가지 측면을 더 보충할 수 있을 겁니다.

1989 년 톈안먼 사건에 대해서, 국제 사회와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그들의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 진짜 얼굴을 드러낸 어두운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톈안먼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계산된 잔혹성입니다. 이 탄압은 단지 우발적인 반응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완전히 진압하고 미래에 비슷한 의도를 가진 누구에게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최고 지도부에서 신중하게 계산된 결정의 흔적을 보입니다. 이는 중공(中共)에게 있어, 국민의 생명과 염원보다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의, 즉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는)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정보 봉쇄와 왜곡 선전입니다. 사건 직후, 중국의 선전 기구는 진실을 왜곡하고, 평화 시위대를 '폭도', '반혁명 분자'로 매도하며, 실제 사상자 수를 은폐하기 위해 총력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류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한동안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국제 여론의 일부까지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독재 정권이 정보의 흐름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후과입니다. 텐안먼 사건은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수년간 잠재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지도 세대가 어떠한 정치적 반대 의견의 표출에도 더욱 경계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개혁 사상을 가진

많은 지식인들이 침묵하거나 나라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1999 년부터 시작된 파룬궁 탄압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그들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온화한 집단에 대한, 정신적으로,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자행된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집단 학살적 성격을 띤 캠페인으로 봅니다. 이 탄압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정권의 비합리적인 두려움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이 수련하는 파룬궁의 빠른 성장과, 본질적으로 어떤 선량한 정부와도 충돌하지 않는 진(眞)·선(善)·인(忍)이라는 도덕적 가치 체계가, 중공(특히 당시 장쩌민)에게는 사상적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독립적인 정신적 세력이 그들의 이데올로기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둘째, 탄압을 위한 국가기관의 동원입니다. 중공은公安, 법원, 감옥에서부터 언론 매체, 대중 단체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 전체를 동원하여 탄압을 실행했습니다. 탄압을 지휘하고 집행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전문 기구인 '610 판공실'을 설립한 것은, 그들의 심각성과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셋째, 증오 선전과 희생자의 비인간화입니다. 가장 잔혹한 전술 중 하나는 언론을 이용해 파룬궁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여, 대중들 사이에 수련생들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자를 '사교(邪教)', '인간이 아닌 존재'로 비인간화하는 것은, 사회적 양심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고문과 살해 행위가 자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집단 학살 정권의 고전적인 전술입니다.

넷째,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우리가 언급했고 앞으로 더 깊이 논의하겠지만, 잔혹한 고문, 불법 감금, 그리고 특히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생들로부터의 장기 적출에 대한 증거들은 모든 범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중국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규탄과 개입이 필요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제 생각에, 중공의 일관된 행동 패턴을 보여줍니다. 즉, 도전을 받거나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과 거짓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은폐의 정교함과 잔혹성의 규모일 뿐입니다.

그리고 류 선생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정보 통제는 그들의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것은 국내 국

민을 속일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가 진실에 접근하고 시의적절하며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언론인, 감히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소피아 벨:

그렇다면, 이 두 끔찍한 사건이 모두 한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류사원:

(소피아의 질문을 듣고, 그는 가만히 눈살을 찌푸렸고, 날카로운 시선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 씨, 당신의 질문은 매우 직설적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봤을 법한 지점을 건드리는데요. 이 두 사건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핵심적인 결정들과 흔적들이 권력 최상층의 특정 개인 몇 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1989 년 텐안먼 사건에 대해서는, 무력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덩샤오핑의 역할이 많은 역사 분석가들에 의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어 총서기 자리에 오른 사람은, 우리 모두가 알다

시피, 바로 장쩌민이었습니다. 텐안먼 사건이 그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 년 후인 1999 년, 바로 그 장쩌민이 당, 국가, 군대의 수장으로서, 정치국 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발동하고 지휘했습니다. 그는 이 캠페인을 집행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특별 기구인 610 판공실을 설립했습니다.

관찰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나중에 진실을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치 뿌리 깊은 두려움, 질투심, 그리고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욕망이 그 결정들을 추동한 것 같습니다.

텐안먼 사건에서는, 아마도 통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구세대 지도부 전체의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장쩌민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파룬궁 탄압에서는, 많은 분석가들이 그것이 파룬궁의 빠른 성장과 명성에 대한 장쩌민 개인의 질투심, 그리고 진(眞)·선(善)·인(忍)에 기반한 사상 체계가 당의 이데올로기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 탄압을 관리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자신의 파벌

을 공고히 하며, 다른 내부 문제로부터 여론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이든, 권력 통제 메커니즘이 부족한 시스템에서, 독재적인 지도자의 개인적인 결정이 한 민족 전체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는 그것을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줄리안 리:

(줄리안은 류 선생님의 분석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날카롭게 덧붙였다.)

류 선생님께서 매우 정확하게 분석하셨습니다. 언론과 정치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사건에서 장쩌민의 역할은, 비록 직접적인 정도는 다르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텐안먼 1989 년: 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쩌민은 가장 큰 정치적 수혜자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온화한 태도를 보였던 자오쯔양을 대체하기 위해 그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사건 이후 당내 보수파가 원했던 강경 노선에 장쩌민이 '적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그의 이후 리더십 스타일을 형성했습니다.

파룬궁 탄압 1999 년: 이것은 명백히 장쩌민의 개인적인 흔적이 짙게 묻어나는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내부 소식통과 국제 분석가들은 모두 장쩌민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내 다른 위원들로부터 반대 의견, 심지어는 암묵적인 반대에 직면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온화한 대규모 민중 집단을 탄압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쩌민은 개인적인 권력, 군부와 안보 기구 내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당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자극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습니다.

장쩌민이 했다고 알려진 "나는 공산당이 파룬궁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그의 호전성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탄압을 발동한 것은 또한 장쩌민이 권력 이양 전에 자신만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고, 권력을 공고히 하며, 자신의 파별을 심는 방법으로도 여겨집니다.

한 개인, 특히 최고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이처럼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에 관련되는 것은, 독재 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권력을 한 사람이나 소수 집단의 손에 집중시키는 것, 감시와 반론 메커니즘, 권력 균형이 부재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를 국가 이익, 국민의 생명과 자유보다 위에 둘 수 있을 때, 텐안먼이나 파룬궁 탄압과 같은 비극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또한, 역사적 정의를 찾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피아 벨:

네, 중공(中共)이 파룬궁 탄압을 통해 보여준 악함에 대해,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관찰하신 바와 알고 계시는 독립적인 국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증거, 숫자, 규모 등에 대해서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보통 환자가 장기 이식이 필요할 경우, 병원에서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까지 통상 수개월 또는 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경우 환자에게 맞는 장기를 단 며칠 만에 찾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줄리안 리:

(줄리안의 표정이 한층 더 진지해졌다. 그는 중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듯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소피아 씨, 류 선생님, 방금 제기하신 문제 –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장기 이식 대기 시간의 믿기 힘든 차이 – 이것이 아마도 중국의 장기 이식 산업에서 뭔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간접 증거 중 하나이자, 일종의 '적색 경보'입니다.

소피아 씨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자발적이고 투명하며 엄격하게 관리되는 장기 기증 시스템을 갖춘 선진국에서는, 적합한 신장, 간, 또는 심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증 장기 공급원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의학적으로 적합한 장기를 찾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대기자 명단에 오르고, 장기 배분은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는 장기를 '주문'하고 단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은 끔찍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중국은 반드시 거대한 '살아있는' 장기 저장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공급원'

은 살아있는 사람들로써, 환자에게 내장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에 따라 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자들의 더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연구한 독립적인 국제 조사, 특히 데이비드 킬고어, 데이비드 메이터스, 그리고 이선 굿맨의 보고서에서 나온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장기 이식 산업의 폭발적인 증가에 관한 것입니다.

2000 년 이후, 중국의 장기 이식 건수는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장기 이식 건수를 기록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가 중국에 효과적인 공공 자발적 장기 기증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통 문화에 따라, 중국인들은 보통 사후 장기 기증을 원치 않습니다. 자발적인 장기 기증자 수는 극히 적어, 그 거대한 이식 규모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설명할 수 없는 '공식적인' 장기 공급원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 중국 정부는 주요 장기 공급원이 사형 집행된 사형수로부터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된 사형

수 수(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또한 그 이식 건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형수로부터의 장기 사용 또한 국제 의료 윤리 기준에 위배됩니다.

국제적인 압력 이후, 중국은 자발적 장기 기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형수 장기 사용을 점차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식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장기 대기 시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정도로 짧습니다.

셋째, 비합리적으로 짧은 장기 대기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소피아 씨께서 언급하셨듯이, 이것은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병원들, 장기 이식 관광 홍보 웹사이트들(압력으로 인해 삭제되기 전)은 환자에게 적합한 장기를 단 몇 주, 심지어 며칠 만에 찾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이것은 '주문'이 있을 때 살해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전에 혈액형과 조직 검사를 마친 거대한 수감자 은행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일부 병원들은 심지어 사전에 장기 이식 일정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장기 공급원을 완전히 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증인들의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조사관들은 의사, 간호사(일부는 해외로 탈출함), 교도관, 그리고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로부터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수감자들(특히 파룬궁 수련생)의 혈액 검사에서부터 적합한 '공급원' 선택, 그리고 장기 적출 수술 실행에 이르기까지, 종종 희생자가 아직 살아있거나 막 사망 직전에 이루어지는, 긴밀하게 조직된 절차를 보여줍니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고문을 당하고, 비정상적으로 (오직 내장 기관에만 집중된) 건강 검진을 받은 후, '사라졌다'는 끔찍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통계 수치와 논리적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조사관들은 중국 내 수백 개 이식 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표된 병상 수, 의사 수, 수술 건수(종종 은폐되기는 하지만)를 합법적인 출처의 장기 수와 비교했습니다. 그 차이는 매우 커서, 매년 수만 건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사례에 달했습니다.

이선 굿맨은 그의 저서 『대학살(The Slaughter)』에서, 2000-2008 년 기간 동안 약 65,000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장기 적출을 위해 살해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후의 보고서들은 이 숫자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업데이트했습니다.

여섯째, 시기적 일치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의 장기 이식 산업의 폭발적인 증가(2000 년 이후)는 파룬궁 탄압이 시작된 시점(1999 년 7 월) 및 대규모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전국 각지의 감옥과 노동 수용소에 체포, 감금된 시점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그들은 풍부하고, 건강하며(흡연, 음주를 하지 않고 기공을 연마하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기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끔찍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익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적'으로 간주하는 집단을 소멸시키기 위해, 양심수들로부터의 장기 적출 산업을 묵인하고, 심지어 주도했으며, 그 주요하고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파룬궁 수련생들이었습니다.

소피아 씨, 중국의 장기 대기 시간이 그렇게 짧다는 것은, 그들이 선전하려는 '의학적 성취'가 아니라, 바로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을 고발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부품 창고'로 전략했을 때, 인간 생명에 대한 극도의 경시를 보여줍니다.

류사원:

(류 씨는 줄리안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줄리안 씨, 방금 당신이 설명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막연하게 느끼고 고통스럽게 알게 된 것들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해주는군요. 안연(安然)이... 그 아이가 끌려갔을 때,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 역시 왜 그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왜 그렇게 큰 '수요'가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숫자와 분석은, 이것이 몇몇 비인간적인 개인들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교하게 조직된 범죄 시스템 전체임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소위 '짧은 장기 대기 시간'은, 이제 제게,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주문'에 따라 억울하게 빼앗겼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것은 또한 왜 정부가 정보를 은폐하려 애쓰고, 왜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거부하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너무나 끔찍하고, 만약 그것이 완전히 드러난다면, 그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양심의 선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는 정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고통과 분노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줄리안 씨, 용감하게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피아 벨:

이 이야기가 나오니, 저를 깊이 경악하게 했던 한 사건이 떠오르는데, 중국의 장기 적출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2018 년 6 월 말,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인 호찌민시로 출장을 갔을 때, 저는 우연히 그곳에서 과학과 예술의 이름으로 '인체의 신비전'이라는 이름의 플라스틱화된 시신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정보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보러 갔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과학과 예술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이미지는, 임신 7-8 개월 정도 된 태아가 뱃속에 있는 채로 배가 갈라진 임산부의 시신이

었습니다... 저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임산부의 시신을 가져와 해부하고 대중 앞에 전시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여성이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했다면, 가족들이 정중하게 장례를 치렀을 것이고, 가족들이 낯선 이에게 마음대로 해부하고 전시하도록 시신을 기증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더 알아보니, 이 시신들은 1999 년 8 월 중국에서 군터 폰 하겐스라는 독일인이 설립한 시신 플라스틱화 공장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설립한 공장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이 공장들에 제공된 시신들이 중국에서 산 채로 장기를 적출당한 희생자들의 시신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줄리안 리:

(줄리안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소피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소피아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깊은 생각과 다소 분노에 찬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 씨, 호찌민시에서 보신 '인체의 신비전'에 대한 당신의 경험과 의문은 정말 주목할 만하며, 그것은 저를 포함한 많은 인권 조사관들이 수년간 제기해 온 깊은 우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신이 묘사한 것 – 특히 태아와 함께 있는 플라스틱화된 임산부 시신의 충격적인 이미지 – 바로 그것이 이 전시회에 사용된 시신의 출처와 도덕성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적인 지점 중 하나입니다.

(그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이 알아본 대로, 플라스틱화 기술을 발명한 군터 폰 하겐스는 1999 년 8 월 중국 다롄(大連)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폰 하겐스의 공장뿐만 아니라, 그 이후 중국에는 다른 여러 플라스틱화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이 나라를 플라스틱화된 인체 표본의 생산 및 수출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시기적인 일치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1999 년 7 월: 중국 공산당이 전국적으로 파룬궁 탄압을 시작하여, 수백만 명의 수련생들이 체포되고 감금되었습니다.

둘째, 1999 년 8 월: 폰 하겐스의 플라스틱화 공장이 다렌에 설립되었습니다.

셋째, 2000 년 이후: 중국의 장기 이식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인체의 신비전'과 유사한 버전의 전시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로 중국에서 온 시신들을 사용하여 전 세계를 순회했습니다.

이 시신들이 장기 적출 희생자들의 것이 아닌가 하는 당신의 의문은, 전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의문입니다.

첫째, 불분명한 시신 공급원입니다. 전시 주최측은 종종 시신이 '과학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신을 기증한' 사람들이나 '연고 없는 시신'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인이나 그 가족의 동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거의, 혹은 전혀 제공하지 못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온 시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장기 기증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자발적 시신 기증 시스템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취약합니다.

둘째, 양심수들의 '실종'입니다. 우리가 논의했듯이, 수십만, 심지어 수백만의 파룬궁 수련생들과 다른 양심수들이 중국의 감옥과 노동 수용소 시스템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정보를 받지 못했고, 시신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시신들은 어디로 갔는가?

셋째, 경제적 이익입니다. 장기 이식 산업과 플라스틱화 인체 전시 산업 모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양심수들을 - 내장은 팔기 위해 적출하고, 남은 시신은 플라스틱화 공장에 팔 수 있는 -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보다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비인간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끔찍하지만 비논리적이지는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넷째, 임산부와 같은 특정 사례입니다. 소피아 씨께서 매우 예리하게 지적하셨듯이, 한 가족이 전시품으로 만들기 위해 태아와 함께 있는 임산부의 시신을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것은 어떤 문화권에서도,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표본의 존재는 그 출처가 결코 '자발적'이거나 '깨끗하지' 않다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살해된 수감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기 적출과의 연관성

비록 전시회에 있는 특정 시신이 장기 적출을 당한 특정 희생자의 것이라고 직접적,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극도

로 어렵지만(중국 정부가 모든 정보와 증거를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요소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첫째, 풍부하고 통제되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양심수 공급원.

둘째, 귀중한 내장이 적출된 후, 남은 시신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플라스틱화 공장에 판매하는 것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흔적을 지우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셋째, 중국 측과 전시 주최측 양쪽 모두의 투명성 부족과 불만족스러운 해명.

많은 인권 단체와 조사관들은 이 전시회에 사용된 시신의 출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완전한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이를 보이콧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소피아 씨, 당신이 목격한 것과 당신의 의문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잔혹함이 생명을 빼앗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망 후 희생자의 신체까지 모욕하고 상품화하는 잠재적인 범죄에 대한 깊은 근거 있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류사원:

(류 씨는 소피아의 이야기와 줄리안의 분석을 들으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경악과 고통이 역력했다. 그는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연(安然)이가 장기 적출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그것이 비인간성의 극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 씨의 이야기와 줄리안 씨의 분석을 들으니... 희생자들의 신체, 어쩌면 제 딸의 신체까지도 전시품으로 만들어지고, 상품화되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이자 능욕입니다.

저는... 저는 정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악에 대한 모든 상상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 공산당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도덕적 가치와 인성의 마지막 한계선까지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두 손을 꼭 쥐 채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들의 잔혹함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저는 여전히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그들의 악행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소피아 벨:

네, 류 선생님의 따님과 같은 사례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악한 행위들이지만 중공 정부에 의해 은폐되고 보호받으며, 소수의 정보원과 증인들을 통해서만 일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줄리안 리:

(줄리안은 소피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류 선생님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로서의 단호함 또한 잃지 않았다.)

소피아 씨 말씀이 맞습니다. 류 선생님의 따님 안연과 같은 사례는 지극히 고통스러운 개인의 비극이지만, 그것들은 단독적이거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훨씬 더 큰 범죄의 그림, 즉 중공 국가 권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은폐되고 보호받는 범죄의 그림의 아주 작은 일부를 드러내는 조각들입니다.

(그는 류 선생님을 보았다가, 다시 소피아 쪽으로 돌아섰다.)

이러한 사악한 행위들이 소수의 정보원과 증인들을 통해서만 일부 드러나는 것은 슬픈 현실이지만, 전체주의 독재 정권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첫째, 절대적인 정보 통제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중국은 국내의 거의 모든 정보 흐름을 통제합니다. 그들에게 불리한 정보, 특히 범죄를 폭로하는 정보는 철저히 검열, 차단, 왜곡됩니다.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은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의 유출도 막습니다.

둘째, 증인에 대한 협박과 공포 조장입니다. 감히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들은 모두 체포, 고문, 투옥에서부터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감시당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잔혹한 보복에 직면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만연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서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셋째, 국내 독립 조사 기구의 부재입니다. 중국에는 이러한 범죄를 폭로하고 재판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 기관, 진정한 사법 재판소, 자유 언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의 지휘하에 있습니다.

넷째, 증거 수집의 복잡성과 어려움입니다. 장기 적출과 같이 비밀스럽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 현장과 증인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국제 조사관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섯째, 일부 국가 및 국제기구의 무관심 또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슬프게도, 때로는 눈앞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들은 중공의 범죄 증거에 대해 '눈을 감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그저 억지력 없는 미약한 목소리만 낼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벽들 때문에 우리가 얻는 정보는 종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다음과 같은 출처에서 나옵니다.

첫째, 해외로 탈출한 용감한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전직 양심수, 의사, 간호사, 공안 등 범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고 위험을 무릅쓰고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끊임없이 정의를 찾는 희생자들의 가족들입니다. 류 선생님의 경우처럼, 비록 늦었지만, 고통과 진실이 그로 하여금 목소리를 내도록 촉구했습니다.

셋째, 끈기 있는 국제 인권 조사관들입니다. 데이비드 킬 고어, 데이비드 메이터스, 이선 굿맨과 같은 사람들은 중국 측의 방해와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을 바쳤습니다.

넷째,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들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때로는 시스템 내에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밀 정보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정보 조각, 하나의 증언은, 비록 작을지라도, 모두 지극히 소중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범죄의 전체 그림을 점차 그려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조각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 언론인, 인권 단체의 임무는 바로 그러한 조각들을 수집, 확인, 보급하여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하고, 악을 저지른 자들이 영원히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공의 희생자들을 위해 진실을 폭로하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투쟁은 길고 험난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끈기 있게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빛은 결국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소피아 벨:

그렇다면 국제 사회, 특히 유엔과 같은 정부나 글로벌 기구들은 이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군요... 제가 관찰하기로는, 여전히 소수의 개인이나 작은 단체들만이 용감하게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종교 보고서의 몇 구절이나, 몇몇 의원들의 법안 초안에 그치지 않고, 더 강력한 성명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줄리안 리:

(줄리안의 표정에 소피아의 평가에 대한 동의와 다소의 실망감이 역력했다.)

소피아 씨, 방금 당신이 나눈 이야기는 슬픈 현실을 반영하며, 또한 중국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국제 사회, 특히 주요 강대국 정부와 유엔과 같은 글로벌 기구들의 중공(中共) 범죄, 특히 장기 적출 참상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며, 문제의 심각성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는 실망감을 강조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유엔입니다. 종종 비효율적이고, 강대국(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 포함)에 의해 좌우되며, 실질적으로 강력한 제재 조치나 조사 메커니즘 없이 일반적인 보고서나 호소문만 발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유엔의 인권 기구들이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영향력과 행동 능력은 종종 정치적 요인에 의해 제한됩니다.

둘째, 서방 정부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매년 인권 및 종교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그 안에서 파룬궁 탄압과 장기 적출 혐의에 대해 언급합니다.

또한 이들 국가의 의원이나 입법자들이 범죄를 규탄하고, 조사를 요구하며, 자국민의 중국 내 장기 이식 관광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이나 결의안을 제출하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행정부 차원, 즉 전반적인 외교 정책 차원에서는, 행동이 종종 충분히 강력하고 결단력 있지 않습니다. 성명

은 보통 외교적인 수사에 그치며, 베이징과의 과도한 정면 대결을 피합니다.

왜 이런 주저함과 결단력 부족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익 때문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자 많은 국가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경제 관계를 해치거나 무역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인권과 관련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 '고려'해야만 합니다. '돈'은 종종 매우 큰 목소리를 냅니다.

둘째, 지정학적 고려입니다. 중국은 (기후 변화, 테러 방지, 핵무기 확산 등) 여러 국제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 강대국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때때로 이러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그 협력을 얻기 위해 인권 문제를 '양보'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수집의 복잡성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중국과 같이 정보를 은폐하는 정권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넷째, 중국의 강력한 로비 활동입니다. 베이징은 혐의를 완화하고, 정치인과 언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외에서의 로비 활동과 선전에 많은 돈을 씁니다.

다섯째, 서방 국가들 내부의 정치적 양극화입니다. 때로는 인권을 포함한 외교 문제가 정당 간의 논쟁거리가 되어, 합의와 공동 행동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고, 진실을 폭로하며, 정의를 요구하는 부담은 종종 다음과 같은 이들의 어깨에 떨어집니다.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들. 이들은 조사, 증거 수집, 정책 로비, 대중 인식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는, 독립 언론인, 개인 활동가들. 이들은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진실을 추구하는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또는, 해외 화교 커뮤니티와 피해자 그룹들. 직접 겪었거나 가족이 희생자인 그들의 목소리는 매우 큰 감동을 줍니다.

저 역시 소피아 씨의 실망감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더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행

동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권과 정의를 위한 투쟁이 종종 긴 길이며, 여러 측면에서 끊임없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고, 단지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의 압력, 시민 사회 단체의 압력, 그리고 개인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점차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의 의회에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런던의 중국 재판소와 같은) 독립적인 재판소에서 중공의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중요한 진전입니다.

류사원:

(류 씨는 줄리안의 분석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슬픔과 무력감이 스쳐 지나갔다.)

줄리안 씨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계산, 지정학적 고려... 이런 것들 때문에 종종 정의와 인권이 뒷전으로 밀려나곤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체제 안에 있을 때, 저 역시 중국 정부가 경제력을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부의 비판을 막는 도구로 사용

하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사거나'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온 후에도, 저는 민주주의 강대국들에 많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희생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양심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한,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피아 씨, 줄리안 씨,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 같은 분들의 노력이야말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격려이자 희망입니다.

소피아 벨:

그렇다면 중국 현 지도자의 관점은 어떤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가 파룬궁 탄압과 장기 적출 범죄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시진핑의 상황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내리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는 의견을 나눈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시진핑의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두 분의 관점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류사원:

(소피아의 질문을 듣고, 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베이징 권력 내부의 복잡한 계산을 꿰뚫어 보려는 듯 먼 곳을 향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내리기 어렵다"는 말은... 참으로 함축적인 표현이며, 아마도 현 중국 지도자인 시진핑이 파룬궁 탄압과 관련된 범죄라는 무거운 유산을 마주했을 때의 처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말을 멈췄다.)

체제 안에 있었던 사람의 관점에서, 저는 시진핑이 '타고' 있을 법한 '호랑이'의 몇 가지 측면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장쩌민과 그 파벌의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파룬궁 탄압은 장쩌민과 그의 파벌이 공동으로 구축하고 유지해 온 큰 '업적'이자 정치적 '유산'입니다. 이 파벌은 여전히 당, 군대, 특히 탄압을 직접 집행하는 안보, 공안, 사법 시스템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룬궁 문제를

건드리는 것, 특히 판결을 뒤집는 것은 이 파벌의 이익과 심지어 안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쉽게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둘째, '불안정'과 '당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어떤 중공 지도자에게나 있는 뿌리 깊은 두려움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탄압에서의 실수를 인정하고, 수천만 명에게 정의를 되돌려주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고 당의 위신과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연이은 다른 요구, 다른 '역사 재평가'로 이어져, 결국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셋째, 너무나 커서 '원만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 적출 범죄가 만약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조사된다면, 중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너무나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책임은 단지 몇몇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전체 시스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랑이에서 내리는 것'은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역사적 재판'에 직면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이미 구축된 기구의 구속력입니다. 610 판공실과 파룬궁 탄압 시스템 전체는 20 년 이상 운영되어 왔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복잡한 이익이 얽힌 거대한 기계

가 되었습니다. 이 기계를 멈추고, 해체하며, 관련자들을 처리하는 것은 지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호랑이를 타거나': 즉, 당 내부의 큰 혼란을 피하고 표면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탄압 정책을 그대로, 혹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죄를 계속 묵인하고, 역사적 부담을 계속 짊어지며, 국제 사회와 국내 양심 있는 이들로부터의 비난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호랑이에서 내리려' 하거나: 즉, 파룬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되돌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가시밭길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으며, 비범한 용기와 매우 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고, 보수 세력과 '피의 빛'을 진 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소피아 씨가 보신 것처럼, 시진핑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그가 그러한 어려운 선택지들 사이에서 숙고하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가 이 위험한 '호랑이'를 건드리기 전에, 개인 권력을

공고히 하고 그가 더 시급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고, 불의와 범죄에 기반한 현상 유지를 하려는 것은 결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호랑이'는, 만약 현명하고 용감하게 '길들이거나'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조만간 그 등에 탄 사람 자신을 물어뜯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저의 좁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생각입니다.

줄리안 리:

(줄리안은 류 선생님의 분석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치학적 관점을 덧붙였다.)

류 선생님께서 시진핑의 경우에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는 말의 의미를 매우 깊이 있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정치 분석의 관점에서 몇 가지 측면을 보충하고 싶습니다.

첫째, 정책의 연속성과 권력 계승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과 같은 일당 독재 체제에서는, 특히 '국가 안보'와 '체제 안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전임자의 주요

정책, 특히 파룬궁 탄압과 같이 '민감한'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당의 통일성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내부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유산의 덫(Legacy Trap)'에 관한 것입니다. 시진핑은 장쩌민으로부터 파룬궁 탄압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유산'은 거대한 기구(610 판공실, 노동 수용소, 감옥, 장기 적출에 참여한 병원 시스템...), 탄압과 관련된 이익 집단 네트워크, 그리고 이미 '손에 피를 묻힌' 수많은 관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유산'을 처리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강력하게 뒤집는다면, 그는 탄압과 이익이 결부된 사람들, 혹은 책임 추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부터 강력한 반발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 권력 공고화 우선에 관한 것입니다. 집권 초기와 그 이후에도, 시진핑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호랑이와 파리를 잡는' 캠페인을 통해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개인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파룬궁과 같은 까다로운 문제를 건드리기 전에, 적대 파벌, 특히 장쩌민 파벌의 잔재를 해결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은, 비록 장쩌민 파벌의 일부 고위 인사를 건드렸지만, 파룬궁과

관련된 범죄의 뿌리까지는 아직 건드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도미노 효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약 실수를 인정하고 파룬궁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은 '선례'가 되어 다른 역사적 문제(텐안먼, 문화대혁명 등)를 재검토하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체제의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중공 지도자라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는 이미지는 매우 정확합니다. 시진핑은 이 '호랑이'에 스스로 '올라탄' 것이 아닐 수 있지만(왜냐하면 그것은 전임자 시절부터 이미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위에 올라탄 이상, 그것을 조종하거나 안전하게 내리는 방법을 찾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룬궁 문제에 대한 시진핑의 침묵이나 불명확함은, 그가 권력을 공고히 하고 다른 도전에 대처하는 동안 '상황을 관망하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혹은, 더 슬프게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기존 정책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계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한 지도자가 과거의 실수와 범죄를 감히 마주하고 바로잡지 못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신과 민족 전체에 항상 짐이 될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심판할 것입니다.

소피아 벨:

저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시진핑 자신이 파룬궁 탄압의 사악한 정도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 말입니다... 류 선생님 자신의 경우처럼, 따님이 해를 입기 전까지는 이 탄압의 진실을 모르셨던 것처럼요...

류사원:

(소피아의 질문을 듣고, 그는 가만히 눈살을 찌푸리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매우 날카롭고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었다.)

소피아 씨,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될 가능성일 겁니다. 비록 시진핑과 같이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처럼 보일지라도요.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말을 멈췄다.)

제 자신의 경우를 돌아켜보면, 제가 시스템이 만들어낸 '정보의 거품' 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성(省)급 관리로서 저만의 정보 채널이 있었음에도, 파룬궁과 같이 '민감하고' 엄격하게 통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게 도달하는 것들이 여전히 주로 방향이 정해지고 걸러진 정보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 비극이 닥치기 전까지는 완전한 진실을 알지 못했고, 혹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혹은 감히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수장인 시진핑 역시, 파룬궁 탄압의 사악한 정도, 특히 장기 적출 범죄에 대해 비슷한 '정보 문맹'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고 및 정보 '필터링' 시스템입니다. 독재 체제에서는 정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종종 매우 철저하게 '걸러집니다'. 하급자는 보통 상급자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하고, 부정적인 정보나 불리할 수 있는 진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도한 잔혹함,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정보는 최고위층까지 완전하고 정직하게 보고되지 않았거나, 매우 완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익 집단의 포위입니다. 탄압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 특히 장기 적출 범죄에 깊이 '손을 담근' 자들은, 진실을 숨기고 정보가 시진핑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주위에 정보의 벽을 만들고, '처리된' 보고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도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최고 지도자는 수많은 대내외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파룬궁 문제는 시진핑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었을 것이고, 그는 독립적인 검증 없이 (안보 시스템, 610 판공실과 같은) 전문 기관의 보고서에 의존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완전한 무지'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첫째, '호랑이와 파리를 잡는' 캠페인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적 경쟁자, 특히 장쩌민 파벌에 속한 고위 인사들(저우 용캉, 보시라이, 쉬차이허우, 귀보송 등)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모두 파룬궁 탄압과 장기 적출 범죄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보가, 비록 공개되지는 않았더라도, 시진핑의 귀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믿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국제 사회로부터의 정보입니다. 중공이 은폐하려 애쓰더라도, 인권 단체, 국제 의회의 중국 내 장기 적출 참상에 대한 보고서, 결의안, 청문회 등은 시진핑의 정보 및 첩보 시스템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문제의 끈질긴 존재입니다. 파룬궁 탄압은 20 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중국의 국제적 위신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입니다. 시진핑과 같이 비전을 가지고 정보를 파악하는 지도자가 이처럼 오래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 완전히 '어리둥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상황이 '완전히 모른다'기보다는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진핑은 어느 정도는 알지만, 범죄의 자세한 정도와 실제 잔혹함은 그가 전부 파악하지 못했거나, 왜곡된 정보에 의해 완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가 알면서도 정치적 계산과 권력에 대한 고려 때문에,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거나,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처럼, 아마도 어떤 '충격',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만 시진핑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끔찍한 진실 전체를 진정으로 마주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올지, 그리고 그가 행동할 용기가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경험과 관찰에 근거한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중공 내부의 진실은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블랙박스'입니다.

줄리안 리:

(줄리안은 류 선생님의 신중함에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류 선생님께서 매우 타당하고 균형 잡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시진핑과 같은 최고 지도자가 파룬궁 탄압의 사악한 정도에 대해 '완전히 모르는가' 하는 것은 복잡한 질문입니다.

저는 '완전히 모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데 동의합니다. 특히 그가 10 년 이상 집권한 후와 반부패 캠페인에서 일어난 일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독재 정권 연구에는 '의도적 무지 (willful ignorance)' 또는 '그럴듯한 부인 (plausible deniability)'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도적 무지'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도덕적 또는 법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장 어두운 측면,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 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목표만 달성된다면, 하급자가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거나 묵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부인'에 대해서는, 하급자가 나중에 추궁당할 경우 상급자가 그 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도록, 잔혹한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장'을 보호하는 한 방법입니다.

시진핑의 경우, 여러 요소가 결합되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파룬궁 탄압이 잔혹하다는 것은 알지만, 산업적 규모의 장기 적출 범죄의 야만적인 정도를 전부 상상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정보 및 안보 기관으로부터 '미화'되거나 '완화된' 보고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는 정권의 존속과 개인 권력에 '생사가 걸렸다'고 여기는 다른 문제들을 우선시하며, 파룬궁 문제 처리를 잠정적으로 '눈감아주거나' 연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이 사건을 뒤집었을 때 예

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또한 매우 큰 장벽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모른다'기보다는, 아마도 시진핑이 '알지만 완전히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혹은 복잡한 정치계산 때문에 '알지만 아직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없거나/ 감히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원수로서, 최종적인 책임은 여전히 그에게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어떤 수준에서든)은 자신의 통치하에 자행되는 반인륜적 범죄를 막지 않고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소피아 벨:

네, 제가 이 가설을 생각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황제들이 하급 관리들에 의해 정보가 차단되어, 나라의 부패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라가 '태평성대'라고 생각했던 경우를 많이 봅니다.

둘째, 시진핑의 경우, 실제로는 그가 파룬궁 수련생이나 증인과 직접 접촉한 적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그가 받는 모든 정보는 모두 하급자들의 보고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누군가로부터 시진핑이 '정령(政令)이 중남해(中南海)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즉 그의 모든 명령이 완전히 전달되지 않고 심각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류사원:

(소피아가 제시한 이유를 듣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그 분석들에 대한 이해와 동의의 빛이 역력했다.)

소피아 씨, 시진핑이 진실 전체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신이 제시한 이유들은 매우 깊이 생각해볼 만하며, 그것들은 중앙 집권적 권력 시스템의 고질적인 현실을 반영합니다.

황제들이 정보로부터 차단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중국 및 다른 나라들의 역사에는 최고 권력을 쥔 제왕들이 측근과 관료들이 만들어낸 '별도의 세상'에서 살았던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은 좋은 말, 성과 보고만 듣고, 민중의 혹독한 진실과 고통, 관료 기구의 부패는 정교하게 감춰졌습니다.

이러한 은폐의 목적은 황제의 환심을 사거나, 자신의 무능이나 부패를 감추거나, 혹은 불필요한 진노를 피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황제는 나라가 '국태민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졌을 수 있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충성(그리고 파벌의 이익 보호)이 종종 진실보다 우선시되는 중공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정보로부터 차단될' 위험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시진핑이 파룬궁 수련생이나 증인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것 또한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진핑과 같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는 보통 여러 겹의 보안과 정보망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그가 파룬궁 수련생이 겪은 일이나 장기 적출 범죄에 대한 증인의 이야기를 직접 만나 듣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그에게 도달하는 모든 정보는 분명히 안보, 선전 기구, 그리고 전문 기관의 여러 층의 '필터링'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통된 노선'에 맞추거나 지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고, 희생자의 실제 현실로부터의 시각이 없을 때, 지도자가 한 정책의 잔혹함과 불공정함의 정도를 온전히 느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단지 숫자와 메마른 보고서만 볼 뿐,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고통과 눈물은 보지 못합니다.

'정령이 중남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평가이며, 중국 권력 투쟁의 현실 일부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시진핑이 매우 큰 권력을 공고히 하고 많은 경쟁자를 제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거대한 기구의 모든 구석구석을 절대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익 집단, 숨어있는 '태상황', 또는 지방, 군대, 안보 시스템 내의 암흑 세력들이 여전히 시진핑의 지시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할 경우, 그것을 방해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왜곡하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진핑이 어떤 정책(예를 들어 파룬궁에 대한 정책)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그의 명령이 하급에서 완전하고 진지하게 집행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것은 중국에서 드물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또한 시진핑이 끈질긴 암투에 직면해 있을 수 있으며, 만약 파룬궁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가 전체 기계의 '운전대'를 진정으로 잡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피아 씨, 이 모든 요소들이 그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그것은 최고 권력을 가진 지도자조차도 정보로부터 고립될 수 있고,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이끄는 바로 그 시스템으로부터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책임을 줄여주지는 않지만, 그들이 직면하고 있을 수 있는 어려움과 복잡성, 그리고 왜 긍정적인 변화가 때때로 더디거나 기대와 다르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줄리안 리:

(줄리안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 씨와 류 선생님께서 방금 분석하신 점들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고위 지도자들을 둘러싼 '정보 고치 (information cocoons)' 현상은 정치학에서 많이 연구된 문제입니다. 권력이 클수록, 주변 사람들에 의해 현실로부터 고립될 위험도 커집니다.

그리고 "정령부출중남해(政令不出中南海)"라는 표현은,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지도자 아래에서조차, 중국 정치 시스템 내의 권력 분화나 암묵적인 저항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묘사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관료 기구와 다양한 이익 계층을 가진 광대한 나라를 관리하는 것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시진핑이 정말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가 특정 문제에 대해 '모를' 수 있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은, 비록 믿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정보의 벽'을 뚫기 위해 독립적인 목소리,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강조합니다.

소피아 벨:

네, 그럼 줄리안,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줄리안 리:

(줄리안은 류 선생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듣다가, 소피아가 이야기를 요청하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전문적인 자세로 똑바로 앉았다.)

감사합니다, 소피아 씨. 그리고 매우 진솔하고 깊이 있는 나눔을 해주신 류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수년간 중국의 정치 및 사회 동향을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저 역시 이 두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소견이 있습니다. 아마 몇 가지 측면을 더 보충할 수 있을 겁니다.

1989 년 톈안먼 사건에 대해서, 국제 사회와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그들의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 진짜 얼굴을 드러낸 어두운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톈안먼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계산된 잔혹성입니다. 이 탄압은 단지 우발적인 반응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완전히 진압하고 미래에 비슷한 의도를 가진 누구에게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최고 지도부에서 신중하게 계산된 결정의 흔적을 보
입니다. 이는 중공(中共)에게 있어, 국민의 생명과 염원보
다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의, 즉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는)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
다.

둘째, 정보 봉쇄와 왜곡 선전입니다. 사건 직후, 중국의 선
전 기구는 진실을 왜곡하고, 평화 시위대를 '폭도', '반혁명
분자'로 매도하며, 실제 사상자 수를 은폐하기 위해 총력
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류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한동안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국제 여론의 일부까
지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독재 정권이 정
보의 흐름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예입니
다.

셋째, 장기적인 후과입니다. 텐안먼 사건은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수년간 잠재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지도 세
대가 어떠한 정치적 반대 의견의 표출에도 더욱 경계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개혁 사상을 가진
많은 지식인들이 침묵하거나 나라를 떠나게 만들었습니
다.

1999 년부터 시작된 파룬궁 탄압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그들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온화한 집단에 대한, 정신적으

로,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자행된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집단 학살적 성격을 띤 캠페인으로 봅니다. 이 탄압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정권의 비합리적인 두려움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이 수련하는 파룬궁의 빠른 성장과, 본질적으로 어떤 선량한 정부와도 충돌하지 않는 진(眞)·선(善)·인(忍)이라는 도덕적 가치 체계가, 중공(특히 당시 장쩌민)에게는 사상적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독립적인 정신적 세력이 그들의 이데올로기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둘째, 탄압을 위한 국가기관의 동원입니다. 중공은公安, 법원, 감옥에서부터 언론 매체, 대중 단체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 전체를 동원하여 탄압을 실행했습니다. 탄압을 지휘하고 집행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전문 기구인 '610 판공실'을 설립한 것은, 그들의 심각성과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셋째, 증오 선전과 희생자의 비인간화입니다. 가장 잔혹한 전술 중 하나는 언론을 이용해 파룬궁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여, 대중들 사이에 수련생들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자를 '사교(邪教)', '인간이 아닌 존재'로 비인간화하는 것은, 사회적 양심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고문과 살해 행위가 자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집단 학살 정권의 고전적인 전술입니다.

넷째,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우리가 언급했고 앞으로 더 깊이 논의하겠지만, 잔혹한 고문, 불법 감금, 그리고 특히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생들로부터의 장기 적출에 대한 증거들은 모든 범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중국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규탄과 개입이 필요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제 생각에, 중공의 일관된 행동 패턴을 보여줍니다. 즉, 도전을 받거나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과 거짓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은폐의 정교함과 잔혹성의 규모일 뿐입니다.

그리고 류 선생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정보 통제는 그들의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것은 국내 국민을 속일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가 진실에 접근하고 시의적절하며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언론인, 감히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소피아 벨:

그렇다면, 이 두 끔찍한 사건이 모두 한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류사원:

(소피아의 질문을 듣고, 그는 가만히 눈살을 찌푸렸고, 날카로운 시선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 씨, 당신의 질문은 매우 직설적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봤을 법한 지점을 건드리는데요. 이 두 사건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핵심적인 결정들과 흔적들이 권력 최상층의 특정 개인 몇 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1989 년 텐안먼 사건에 대해서는, 무력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덩샤오핑의 역할이 많은 역사 분석가들에 의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어 총서기 자리에 오른 사람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 장쩌민이었습니다. 텐안먼 사건이 그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 년 후인 1999 년, 바로 그 장쩌민이 당, 국가, 군대의 수장으로서, 정치국 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발동하고 지휘했습니다. 그는 이 캠페인을 집행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특별 기구인 610 판공실을 설립했습니다.

관찰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나중에 진실을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치 뿌리 깊은 두려움, 질투심, 그리고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욕망이 그 결정들을 추동한 것 같습니다.

텐안먼 사건에서는, 아마도 통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구세대 지도부 전체의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장쩌민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파룬궁 탄압에서는, 많은 분석가들이 그것이 파룬궁의 빠른 성장과 명성에 대한 장쩌민 개인의 질투심, 그리고 진(眞)·선(善)·인(忍)에 기반한 사상 체계가 당의 이데올로기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 탄압을 관리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자신의 파벌을 공고히 하며, 다른 내부 문제로부터 여론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이든, 권력 통제 메커니즘이 부족한 시스템에서, 독재적인 지도자의 개인적인 결정이 한 민족 전체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는 그것을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줄리안 리:

(줄리안은 류 선생님의 분석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날카롭게 덧붙였다.)

류 선생님께서 매우 정확하게 분석하셨습니다. 언론과 정치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사건에서 장쩌민의 역할은, 비록 직접적인 정도는 다르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텐안먼 1989 년: 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쩌민은 가장 큰 정치적 수혜자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온화한 태도를 보였던 자오쯔양을 대체하기 위해 그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사건 이후 당내 보수파가 원했던 강경 노선에 장쩌민이 '적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그의 이후 리더십 스타일을 형성했습니다.

파룬궁 탄압 1999 년: 이것은 명백히 장쩌민의 개인적인 흔적이 짙게 묻어나는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내부 소식통

과 국제 분석가들은 모두 장쩌민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내 다른 위원들로부터 반대 의견, 심지어는 암묵적인 반대에 직면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온화한 대규모 민중 집단을 탄압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쩌민은 개인적인 권력, 군부와 안보 기구 내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당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자극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습니다.

장쩌민이 했다고 알려진 "나는 공산당이 파룬궁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그의 호전성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탄압을 발동한 것은 또한 장쩌민이 권력 이양 전에 자신만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고, 권력을 공고히 하며, 자신의 파벌을 심는 방법으로도 여겨집니다.

한 개인, 특히 최고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이처럼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에 관련되는 것은, 독재 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권력을 한 사람이나 소수 집단의 손에 집중시키는 것, 감시와 반론 메커니즘, 권력 균형이 부재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를 국가 이익, 국민의 생명과 자유보다 위에 둘 수 있을 때, 텐안먼이나 파룬궁 탄압과 같은 비극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또한, 역사적 정의를 찾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피아 벨:

네, 두 분께서 방금 제시하신 판단 중에, 류 선생님의 세 번째 판단, 즉 "완전히 답변을 거부하거나 오류를 보고한다"는 것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꽤 놀랐습니다! 그것은 결코 막연하게 회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오류를 보고하면서, 제가 그들의 '이용 정책을 위반했다'는 메시지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단지 질문 하나 때문ですよ!

류사원:

(소피아의 대답을 듣고,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에 슬픈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맞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인이었다.)

그렇다면 제 세 번째 판단이 맞았군요... "완전히 답변을 거부하거나 오류를 보고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정책을 위반했다'는 메시지까지 덧붙여서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소피아 씨, 줄리안 씨, 이것은 저를 놀라게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인공 지능'이라고 불리며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도구조차도, 진실을 두려워하고, 정부가 '민감하다'고 여기는 문제를 회피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인 파룬궁에 대해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정책을 위반했다'고 통보하는 것은, 검열과 사상 강요의 정도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지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제에 대한 호기심이나 탐구 자체를 '잘못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또한 제가 이전에 말했던 한 가지를 반영합니다.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은 단지 기술적인 방화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사상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억압되고, 가장 현대적인 도구조차도 그러한 비합리적인 '정책'에 순응해야 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지식을 넓히고 인간을 연결하는 데 봉사해야 할 기술이, 검열을 강화하고 무지를 유지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처럼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진실을 찾고 공유하려 할 때 직면해야 하는 도전들을 보여주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예입니다. 이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많은 것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줄리안 리:

(줄리안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소피아 씨가 방금 제공한 딥시크(DeepSeek)의 반응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가치가 있습니다. 파룬궁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AI가 답변을 거부하고 '정책 위반'을 보고하는 것은, 기술 회사들, 특히 중국 시장과 관련된 회사들이 매우 큰 검열 압력을 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 여러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첫째, AI 분야로의 검열 확산입니다. 이는 중공(中共)의 정보 통제 전쟁이 AI 플랫폼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거대 언어 모델들은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리 프로그래밍된 '정책'입니다. AI 가 '정책 위반'을 보고하는 것은 검열 규칙이 이미 그 알고리즘이나 훈련 데이터 세트에 통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연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셋째, 왜곡된 'AI 세계관'의 위험입니다. 정보 제공 및 인간 지원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AI 모델들이, 만약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실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도록 '교육'받는다면, 한 세대의 사용자들(특히 중국 내)이 왜곡된 세계관을 갖게 될 위험이 매우 큼니다.

넷째, 학문 및 연구의 자유에 대한 도전입니다. 만약 한 주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조차 '정책 위반'으로 간주된다면, 어떻게 자유롭고 객관적인 학술 연구와 토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피아 씨의 경험은 검열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것은 단지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 지능에게조차 특정 주제를 '접근 불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술이 억압과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류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독재 정권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처럼 시의적절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세부 사항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피아 벨:

여기까지 이야기해보면, 중공의 사악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중국 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진실을 알아볼 때 '만리방화벽'의 영향을 다소 받는 상황이 여전히 많아, 그들이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류사원:

(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스쳤지만, 깊은 이해심 또한 담겨 있었다.)

소피아 씨 말씀이 맞습니다. 중공의 '만리방화벽'은, 단지 국내 국민들에게만 해당하는 단순한 기술적 장벽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은, 직간접적으로, 국경 밖으로까지 퍼져

나가, 전 세계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려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는 '만리방화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중국 내 국민들에게:

첫째, 정보 고립입니다. 이것이 가장 명백한 영향입니다. 그들은 세계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으로부터 차단됩니다. 그들이 국내외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은 주로 공산당에 의해 '편집'되고 방향이 정해진 렌즈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객관적 진실이 왜곡되거나 완전히 은폐되는 '평행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두려움과 자기 검열 심리입니다. 설령 누군가 방화벽을 우회하려 해도, 감시당하고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반대 의견을 감히 표현하지 못하며, '민감한'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습관, 조건반사가 됩니다.

셋째,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어려움입니다. 오랫동안 일방적인 정보만 접하게 되면, 국민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정보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들은

국가의 선전을 쉽게 믿고,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의심하게 됩니다.

중국 밖의 사람들에게:

첫째, 내부로부터의 확실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입니다. 기자, 연구원, 국제 인권 단체들은 중국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증인 인터뷰, 증거 수집이 위험해지고 제한됩니다. '만리방화벽'은 국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허위 정보 및 선전의 확산입니다. 중공은 '만리방화벽'을 세워 정보를 막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 관영 매체, '유령'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하거나, 국제 미디어 플랫폼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허위 정보와 선전 캠페인을 외부 세계에 적극적으로 퍼뜨립니다. 이것은 정보를 혼란시키고, 독립적인 정보 출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회사 및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영향입니다. 소피아 씨가 방금 공유한 딥시크의 경우처럼, 또는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다른 대형 기술 회사들은 베이징의 '게임 규칙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콘텐츠를 검열하고, 사용자 감시에 있어 정부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만리방화벽'이 그 영향 범위를 국경 밖으로 확장하게 만듭니다.

넷째, 중국을 비판하는 개인 및 단체의 망설임입니다. 경제적 보복, 사이버 공격, 또는 중국으로부터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외의 일부 개인이나 단체들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공의 범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만리방화벽'은 여전히 그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며, 정의를 찾으려는 노력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것은 단지 중국 국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와 진실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 명확히 하려는 노력 또한, 비록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 '방화벽'을 뚫는 데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줄리안 리:

(줄리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제 기자의 관점을 덧붙였습니다.)

류 선생님께서 '만리방화벽'의 영향을 매우 포괄적으로 분석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취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만리방화벽'은 단지 검열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 '폐쇄적인 정보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그 생태계 안에서는, '국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콘텐츠가 우선적으로 개발되고 지배하며, 외부의 경쟁자들은 차단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 국민들은 정부가 쉽게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국내 서비스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영향은 국경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중국과 같은 독재 정권이 선전, 영향력 행사, 민주주의 약화를 위해 기술을 점점 더 정교하게 사용하는 글로벌 '정보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짜 뉴스 전파 기술을 매우 빠르게 배우고, AI를 사용하여 왜곡된 콘텐츠를 만들며, 자유 사회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딥시크와 같은 AI 플랫폼이 파룬궁에 대한 질문에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예입니다. 이는 만약 AI 윤리와 훈련 데이터의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과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우리가 진실과 자유에 봉사하는 대신, 검열과 선전의 목적에 봉사하는 기술 도구를 만들어 낼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만리방화벽'과 유사한 정보 통제 노력에 맞서는 싸움은, 단지 중국 국민만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 언론의 자유, 그리고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소피아 벨:

이런 결론이 문득 떠오르네요. 정보 통제가 있는 곳에는, 그곳에 숨기려는 사악한 것이 있다...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류사원:

(소피아의 결론을 듣고, 그는 깊은 동의가 역력한 눈빛으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요약에 대해 생각하려는 듯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소피아 씨, 당신의 그 말, "정보 통제가 있는 곳에는, 그곳에 숨기려는 사악한 것이 있다"는... 짧고 간결하지만, 매우 쓰라리고 보편적인 진실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피아와 줄리안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엄격한 정보 통제 시스템 안에 있었고, 나중에는 진실을 찾으려 노력했던 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그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정보를 통제해야 할까요? 만약 한 정부가 진정으로 깨끗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며, 그들이 내놓은 정책이 정말로 다수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그들이 진실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숨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국민이 명확히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정보가 투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정보 통제는 무엇을 숨기기 위함일까요? 보통은 무능, 부패, 잘못된 정책 결정, 위법 행위, 그리고 특히 국민에 대한 범죄를 숨기기 위함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그들의 위신은 무너지고, 그들의 권력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은폐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정보 통제는 자신감 부족과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정의에 자신감이 있는 강력한 정부는 반대 의견이나 비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공개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오직 약하고,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다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 검열과 탄압에 의존해야 합니다.

파룬궁 탄압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만약 파룬궁이 그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정말로 '사교(邪教)'라면, 왜 그들은 책과 자료를 금지하고, 파룬궁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하는 모든 웹사이트를 차단해야 할까요? 왜 그들은 수련생들의 증언, 장기 적출 범죄의 증거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바로 진실이 그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악하고 범죄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숨기려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말은,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정보의 자유가 짓밟히는 세계 어느 곳, 어느 시대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법칙과 같습니다. 어둠은 항상 빛을 두려워합니다. 거짓은 항상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줄리안 리:

(줄리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저는 소피아 씨의 결론과 류 선생님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확하고 보편성이 높은 평가입니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연구 분야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한 정부의 정보 검열 수준은, 그 정부가 숨기고 있는 잘못과 불미스러운 일의 수준과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언론이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는, 보통 부패 수준이 더 낮고, 정부의 책임성이 더 높으며, 국민이 더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반대로, 정보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국가가 진실을 독점하며, 반대 목소리가 억압되는 곳은, 종종 권력 남용, 부패, 불공정,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의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중국의 '만리방화벽'은 사악한 것들을 숨기기 위한 정보 통제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 목적은 단지 국민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쓴 '공식적인 이야기', 즉 현실을 미화하고 감히 도전하는 누구든 비방하는 이야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소피아 씨의 말은 어떤 정권의 본질을 평가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리트머스 시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보를 두려워하고,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한다면, 그 검열의 장막 뒤에는 분명히 뭔가 매우 잘못되고, 매우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의 자유의 중요성과, 어디에 있든 감히 진실을 찾아 말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강력한 일깨움입니다.

소피아 벨:

그리고 정보가 검열되는 그런 곳에서는, 많은 삶이 아무도 모르게 비극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니, 이런 주제가 떠오르네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나라, 최소한 인간이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두 분은 철학, 리더십 사상, 정책 제도 구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니, 이 주제에 대한 질문에 매우 흥미를 느끼시고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도 어느덧 정오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이 주제는 내일 아침으로 넘기는 게 어떨까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류사원:

(소피아가 새로운 주제를 제안하자, 그의 눈빛이 약간 밝아지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시계를 보고 소피아의 제안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 씨, 방금 제기하신 주제 -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나라, 최소한 인간이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 는 실로 매우 거대한 문제이며, 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공정하고, 문명화되며, 진보적인 사회를 바라는 누구에게나 있는 고민일 겁니다.

그것은 제가 연구 활동을 하던 시절 내내, 그리고 정계에 입문했을 때조차도 해답을 찾으려 애썼던 질문입니다. 비록 그때는 제 생각에 많은 한계가 있었고 편견에 지배당했을 수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겪었던 일들과 수련의 길에서 얻은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그것에 대해 더욱 깊이 사색하고 있습니다.

기반 철학, 지도자의 사상, 정책 제도 구축 방식과 같은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이 한 국가를 형성하는 데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제 생각을 나누는 데 매우 흥미가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이것은 큰 주제이므로, 우리가 그 측면들을 깊이 있게 파고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을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데 사용합니다. 줄리안 씨까지 함께한다면, 매우 풍부하고 유익한 대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내일 토론을 위해 제 생각들을 성찰하고 체계화할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겠네요.

줄리안 리:

(나, 줄리안의 목소리로, 눈빛에 흥미를 보이며 이 기회를 빌려 책을 소개한다.)

저는 소피아 씨와 류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나은 나라를 건설하는 것, 특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

하는 것은 어떤 문명 사회에서든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자 가장 숭고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해 온 분야입니다. 소피아 씨, 류 선생님, 저는 내일 우리가 토론할 주제들에 대해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 일은 지도자들이 권력에서 물러난 후의 그들의 사고방식과 유산을 알아보는 데 꽤 많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전직 고위 관리들과 몇몇 전직 국가 원수들을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많은 심혈과 시간을 기울여 진행한 특별한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한 전직 대통령과의 인터뷰입니다. 그것은 여러 날에 걸친 대화였고, 그의 임기 중 가장 중요한 결정들, 고뇌, 그가 배운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가 자신의 유산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완성 과정에 있는 한 책이 있는데, 제목은 『AFTER POWER: THE LEGACY - A Conversation with a former President』 (권력 이후: 남겨진 유산 - 한 전직 대통령과의 대화)입니다. 원고는 시범 독자들로부터 일부 긍정적인 초기 반응도 받았습니다.

(줄리안 리는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제본된 원고 한 뭉치를 꺼낸다.)

이 자리를 빌려, 류 선생님, 내일 우리가 이 주제들에 대해 토론할 때,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에 한번 훑어보실 수 있도록 이 원고 한 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다른 지도자가 임기를 마친 후의 성찰에 대해 읽어보시고, 그 다음 선생님 자신의 독특한 관점에서 '권력'과 '유산'에 대한 나눔을 해주신다면, 우리 토론에 지극히 귀중한 가치를 더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류사원:

(류 씨는 약간 놀랐지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원고를 받는다.)

오, 감사합니다, 줄리안 씨. 이것은 정말 의미 있고 시기적절한 선물이군요. "AFTER POWER: THE LEGACY"... 제목이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밤에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의 대화도 매우 기대됩니다. 분명히 더 많은 것을 성찰하게 될 것 같군요.

소피아 벨:

훌륭하네요! 그럼 두 분,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분명히 또 한 번 가치 있는 나눔의 시간이 될 겁니다.

셋째 날

소피아 벨:

좋은 아침입니다, 류 선생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 저와 줄리안이 선생님의 나눔을 계속 듣기 위해 다시 함께 왔습니다. 지난 두 번의 나눔은 저희에게 정말 많은 성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줄리안 리:

좋은 아침입니다, 류 선생님.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소피아가 말했듯이, 선생님의 이야기와 분석은 매우 가치 있는 많은 시각을 열어 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드린 『AFTER POWER: THE LEGACY』 원고를 검토해주시겠다는 말씀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류사원: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좋은 아침입니다, 소피아 씨, 줄리안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줄리안 씨의 원고 『AFTER POWER: THE LEGACY』를 빠르게 훑어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록 스쳐 지나가듯 읽었지만, 제가 느낀 바는 실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이, 체제의 본질, 권력의 한계, 그리고 특히 핵심적인 도덕적 가치로의 회귀에 대해 이토록 솔직하게 성찰하고 자문했다는 것에 꽤 놀랐고 또 매우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여러 부분, 특히 그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덕(德)을 근본으로 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동양 고인(古人)들의 많은 가르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소피아 벨:

그 점을 언급해주시니 참 흥미롭네요, 류 선생님. 지난 두 번의 나눔에서, 저희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 파룬궁 탄압의 본질 및 중국 공산당의 범죄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동서양의 고대 가치와 철학들을 함께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 선생님, 겪으셨던 모든 일들 이후, 그리고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파룬궁 수련에 입문하신 후에, 고인들의 가르침, 예를 들어 "윗물이 바르지 않으면 아랫물이 흐리다(上不正, 下則亂)"와 같은 말에 대해, 오늘날 중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새로운 견해를 가지게 되셨나요?

류사원: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눈빛에 깊은 사색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소피아 씨, 당신의 질문은 제가 특히 지난 1 년 동안 많이 고뇌했던 부분을 건드리는군요. 예전에, 제가 연구자이자 관리였을 때, 저 역시 "윗물이 바르지 않으면 아랫물이 흐리다"와 같은 고인들의 가르침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 저는 그것들을 단지 역사적 결론, 경험적 교훈으로만 여겼을 뿐... 그 뒤에 숨겨진 우주의 법칙을 진정으로 깊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경제 모델, 정치 제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한 국가의 근본, 한 사회의 흥망성쇠가 바로 집권자들의 도덕, 더 나아가 민족 전체의 도덕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탄압 속에서 그 극도의 잔혹함과 기만성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그리고 나중에 다행히 대법(大法)을 접하고 『전법륜(轉法輪)』을 읽게 되면서, 저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윗물이 바르지 않으면 아랫물이 흐리다"는 더 이상 공허한 말이 아니라, 오늘날 중국 사회 구석 구석에 고통스럽고 명백하게 존재했습니다. '윗물' – 즉 최고 권력을 쥔 자들 –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완전히 거스르고 양심을 짓밟았는데, 어떻게 '아랫물' – 즉 사회 전체 – 이 '흐려지지(亂)'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필연적인 일이며,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입니다.

줄리안 리:

(진지하게 듣다가, 말을 잇는다.)

류 선생님의 초기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각국의 정치 및 역사 연구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제도든, 아무리 우월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기반이 결여된다면, 조만간 쇠퇴의 길로 들어서거나 압제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법칙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윗물이 바르지 않으면 아랫물이 흐리다"는 동양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양 역사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집권 엘리트층이 청렴함을 잃고 개인과 파벌의 이익을 좇을 때, 대중의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 분열은 증가하며, 불안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고대 철학들을 현대적 맥락, 특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비추어 보는 것은,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지극히 필요합니다.

소피아 벨:

류 선생님과 줄리안 씨의 매우 깊이 있는 개괄적인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류 선생님, 선생님께서 목격하고 경험하신 바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윗물'의 '바르지 않음(不正)'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사회의 '흐려짐(tắc loạn)'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특히 파룬궁 탄압의 맥락에서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주실 수 있을까요?

류사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지고 시름이 담겨 있었다.)

소피아 씨, 중국에서 '윗물' 즉 공산당의 '바르지 않음'은, 단지 개별적인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그 본질, 핵심 이데올로기 자체의 부패입니다.

첫째, 그것은 신불(神佛)과 전통 도덕 가치에 대한 완전한 부정입니다. 정권을 탈취한 이후, 중공은 체계적으로 전통 문화를 파괴하고, 그것을 계급투쟁, 폭력, 무신론에 기반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머릿속에 신불도 없고, 인과응보도 없으며,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되어 목적 달성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입했습니다. 도덕의 근본, 하늘과 땅, 신불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을 때, 악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겠습니까?

둘째, 그것은 체계적인 거짓과 기만이 체제의 본질이 된 것입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초기 약속에서부터, 미화된 경제 성장률, 천인공노할 범죄 은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민과 세계의 눈을 가리기 위해 선전이라는 거대한 '붉은 장막'을 쳤습니다. 지도자와 전체 시스템이 거짓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아랫물'에게 정직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그것은 폭력과 절대 권력에 대한 숭상입니다. "총구에서 정권이 나온다" – 이 말은 지침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상을 가진 누구든, 어떤 집단이든, 당의 독점적 권력을 흔들 위험이 있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되어 소멸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덕으로 인심을 얻지 않고, 공안, 군대, 감옥, 노동 수용소를 이용해 탄압했습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바르지 않음'에서부터, 사회 전체의 '흐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부패는 국가적 재앙이 되어, 정치국 내 가장 큰 호랑이들부터 촌락 단위의 작은 파리들까지, 모두가 인민의 피땀 위에서 재산을 긁어모으고 부자가 되려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이 없고 인과를 믿지 않을 때, 탐욕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 도덕은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서로를 속이고, 불량 식품과 가짜 상품이 만연합니다. 무감각과 이기심이 모든 가정, 모든 관계에 스며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윗물'이 나쁜 본모습을 보이고, 모든 도덕적 가치를 짓밟았는데, '아랫물'이 어떻게 선량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혼란'의 정점은, 파룬궁 탄압보다 더 명백한 것은 없습니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진(眞)·선(善)·인(忍)에 따라 살고, 인간을 가장 좋은 도덕적 가치로 되돌아가도록 가르칩니다. 그렇게 온화한 법문이, 단지 수련하는 사람의 수가 당원 수를 넘어섰다는 이유만으로, 중공 지도부, 특히 장쩌민으로 하여금 권력에 위협을 느끼게 했습니다. 비합리적인 질투와 두려움은 현대 역사상 가장 잔혹한 탄압 캠페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날조하고, 중상모략하며, 전체 언론 기관을 동원해 파룬궁을 비방하고, 온화한 수련인들을 '국가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체포되고, 잔인하게 고문당하며, 노동 수용소에 보내지고, 산 채로 장기를 적출당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이며,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사악한 본질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줄리안 리:

(주의 깊게 듣다가, 말을 덧붙인다.)

류 선생님의 중공의 '바르지 않음'과 그 결과인 '흐려짐'에 대한 분석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저는 한 가지 측면을 보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바르지 않음'이 또한 중공이 의도적으로 중국 국민을 그들 자신의 위대한 문화적 뿌리로부터 단절시켰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통, 수천 년간 다져진 도덕적 가치와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민족은, 외래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종당하고 이끌리기 쉬워집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늘과 땅을 경외하지 않고, 인과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이 악한 일을 하거나 악을 묵인하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문화 대혁명은 바로 전통 문화의 뿌리를 뽑아버린 전형적인 예이며, 그 후과는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남아, 파룬궁에 대한 것과 같은 탄압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류사원:

줄리안 씨 말씀이 맞습니다. 그들은 전통 문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진(眞)·선(善)·인(忍)의 가치, 고인들이 내세운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도리는, 그들의 거짓되고 폭력적인 본질과 완전히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전통 문화에 깊이 젖은 사람은, 것처럼 무신론적이고 비도덕적인 당파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피아 벨: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덕(德)'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옛 봉건 시대의 모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모델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델이나 제도든, 지도자와 국민이 덕을 근본으로 삼지 않으면 조만간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류 선생님, 줄리안 씨, '좋은 모델'이 있다면 그 부패가 더디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덕을 근본으로 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황도무위(皇道無爲)"나 "제도입덕(帝道立德)"과 같은 도가(道家)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류사원:

소피아 씨께서 매우 깊이 있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모델'이나 '제도' 또한 그 역할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권력 통제 메커니즘이 있고, 투명성이 있으며, 잘 설계된 제도는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이 쇠퇴할 때 그 부패를 어느 정도 억제하거나, 적어도 그 과정을 더디고 덜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이 단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덕의 뿌리'가 이미 흔들렸다면,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도 결국에는 뚫리고, 무도한 자들에게 이용당할 것입니다. 역사는 견고해 보였던 많은 공화국, 많은 민주 제도가 엘리트층과 대중이 근본적인 도덕 가치를 상실했을 때 쇠퇴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황도무위"나 "제도입덕"과 같은 도가 사상에 대해서는, 이것이야말로 제가 수련에 입문한 후 매우 깊이 공감하게 된 치국(治國) 철학입니다.

"황도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통치자가 하늘의 도(道)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를 민중에게 강요하거나 난폭하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백성이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고, 정부는 단지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부드럽게 조화시키고 이끄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제도입덕"은 지도자가 자신의 도덕 수양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덕행으로 민중을 감화시키고 모범을 보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윗사람이 덕이 있으면, 민중은 저절로 본받게 되고, 사회는 평안해져, 가혹한 형벌이나 번잡한 법규가 필요 없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들은 완전히 반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무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유위(有爲)" 하며, 사상, 신앙에서부터 생계에 이르기까지 민중 생활의 모든 면에 간섭합니다. 그들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거짓 선전으로 "위를 세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순과 긴장으로 가득 찬 사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 잃어버린 신뢰입니다. 파룬궁 탄압은 바로 그 "유위"와 "무덕(無德)"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닦아 선을 향하고, 진(眞)·선(善)·인(忍)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법문이, 그들에게는 위협으로 간주되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멸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대도(大道)를 거스르고, 하늘의 뜻과 민심을 거스른 것입니다.

줄리안 리:

류 선생님의 분석에 매우 동의합니다. 도가의 '무위' 개념은, 서양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역할을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만 국한시키고, 나머지는 사회가 스스로 운영되도록 내버려 두는 '제한 정부 (limited government)' 나 고전적 자유주의 (classical liberalism) 사상과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류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핵심적인 차이점이자 도가의 깊이는, 그것이 '도(道)'와 '덕(德)'에 기반을 둔다는 점입니다. '무위' 정부는 단순히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특정 도덕적 경지에 도달하여,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 때 사회의 자가 조절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입덕"에 대해서는, 그것은 많은 현대 민주 제도가 때때로 경시하는 것, 즉 지도자의 개인적인 도덕적 품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매우 민주적인 선거 과정, 복잡한 감시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지만, 만약 선출된 사람이 덕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개인이나 파벌의 이익을 위해 시스템을 교묘하게 조종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덕이 있는 지도자는, 불완전한 제도 안에서도, 국가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 역사에는 요(堯), 순(舜), 문왕(文王), 무왕(武王)과 같은 많은 성군(聖君)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권모술수나 가혹한 법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덕으로 천하를 복종시켰습니다.

류사원:

맞습니다, 줄리안 씨. 옛 시대의 성군들은,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 떠들썩한 선전 기구나 수많은 공안 병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도(道)에 맞게 살고, 자신을 수양하며,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때는, 노자(老子)가 말했듯이, "내가 함이 없으니 백성이

저절로 감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이 저절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일을 벌이지 않으니 백성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이 없으니 백성이 저절로 순박해진다(我無爲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正, 我無事而民自富, 我無欲而民自樸)." 그것이야말로 치국(治國)의 도(道)의 최고 경지입니다.

소피아 벨:

만약 '덕'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면, 최고 지도자의 덕이 클수록 국민과 국가에 더 이롭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류 선생님, 줄리안 씨?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재능과 덕을 겸비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대 중국 역사에는 요-순 시대의 '선양(禪讓)'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선거 형식을 따릅니다... 이러한 형식들이 정말로 가장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가(儒家)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철학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품성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류사원:

(찬성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소피아 씨께서 제 뜻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지도자의 덕행이 높을수록, 국가와 민중에게 미치는 복덕은 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덕이 있으면,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할 줄 알고,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할 줄 알며,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등용할 줄 알고, 하늘의 도리와 올바른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재능과 덕을 겸비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로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제도에서든 난제였습니다. 요-순 시대의 '선양'은 이상적인 모델로, 후계자가 혈통이나 파벌이 아닌, 검증된 덕과 재능에 따라 선택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정함과 민중을 위하는 마음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은 현재의 통치자가 진정으로 사심 없는 성인(聖人)이어야 하고, 당시 사회 또한 매우 높은 도덕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선거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인 형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것은 국민에게 자신을 대표할 사람

을 선택할 권한을 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보듯이, 선거 또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 언론, 화려하지만 비현실적인 약속, 그리고 대중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 쉽게 좌우됩니다. 때로는 연설을 잘하고 로비를 잘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진정으로 덕과 재능이 있고 민중을 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최고 지도자 자리에 대한 진정한 선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 내부의 권력 투쟁과 안배입니다.

그리고 유가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철학에 대해서는, 이것이야말로 지도자, 군자의 길과 품성에 대한 지극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것은 매우 논리적인 순서를 제시합니다. 천하를 위해 큰일을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도덕을 닦는 것("수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덕과 지혜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제가"). 가정이 화목하고 질서가 있어야, 한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치국"). 그리고 국가가 안정되고 번영해야, 비로소 온 천하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평천하").

중국 공산당은 이 순서를 완전히 거슬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진정으로 "수신"을 합니까? 아니면 그들은 단지 자신, 가족, 파벌을 위해 재산을 모으는

데만 급급합니까? 많은 고위 관리들의 가족은 스캔들로 가득 차 있고, 자식들은 인민의 돈으로 해외에서 호화롭게 삽니다. "수신"도, "제가"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치국"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수신"을 진(眞)·선(善)·인(忍)에 따라 하도록 가르치는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도덕적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거짓과 폭력에 기반한 통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가치들을 두려워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줄리안 리:

(말을 잇는다.)

소피아 씨께서 제기하신 재능과 덕을 겸비한 지도자 선택 문제, 그리고 '선양'과 '선거'에 대한 류 선생님의 분석은, 실로 영원한 도전 과제입니다. 다당제 선거 시스템을 갖춘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진정으로 합당한 지도자를 찾아내고 세우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과 언론의 영향력이 너무 큼니다. 때로는 대중이 후보자의 본질과 능력보다는, 만들어진 이미지, 치밀하게 계산된 메시지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유가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철학은, 비록 동양에서 비롯되었지만,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리

더십 역량이 단지 관리 기술이나 전문 지식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품성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을 공적인 역할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생활에서의 부정직, 탐욕, 혹은 다른 개인적인 도덕 문제들은, 조만간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신"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자기 인식, 자기 수정, 그리고 경청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능 있는 지도자라도 "수신"을 할 줄 모르고,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른다면, 독단적이 되고 현실과 동떨어지기 매우 쉽습니다.

류사원:

줄리안 씨 말씀이 지당합니다. "수신"은 단지 도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옛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人無十全)"고 했듯이, 누구나 결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고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중공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지혜의 정점',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결코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의 "수신"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실수는 '적

대 세력'이나 객관적인 요인 탓으로 돌려집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르지 않음(不正)'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소피아 벨: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화려한 겉모습, 눈에 잘 띄고 보기 쉬운 것들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반면,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고대 사상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어렵겠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 약 40 년간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은 마치 국내 대중과 국제 친구들의 지지를 끌어당기는 눈부신 '다이아몬드'와도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니, 2018 년 베트남 출장이 다시 떠오르네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베트남 횡단 열차를 탔을 때, 가끔 기차가 시골과 산 언덕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기차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푸른 산 언덕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옆에 앉은 다른 손님에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숲을 아주 잘 보호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군요"... 그때 그 손님이 제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미국인 여기자님, 당신이 보는 저 푸른 풍경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는 설명했습니다. "아세요? 저 멀리 푸른 숲은 유칼립투스 숲으로, 공업용 나무를 심기 위해 숲을 파괴한 '성과'입니다... 유칼립투스는 빨리 자라는 종으로, 제지 산업의 원료로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아세요? 사람들은 유칼립투스가 토양의 비옥도를 엄청나게 파괴하는 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토양의 습도를 유지하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잎과 뿌리에 있는 독성 물질로 다른 관목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약 10 년만 심으면, 산 언덕은 침식되고 척박해지며, 다른 관목과 미생물들은 살 수 없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서 땅을 내려다보면, 산 언덕의 땅이 이미 사막처럼 황량해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이미지는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는 베트남의 유칼립투스 숲 이미지를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와 연관 지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천루, 현대적인 도시, 인상적인 경제 성장률... 그것 역시 도덕, 문화, 인권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황량함, 파괴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류 선생님, 줄리안 씨?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옛사람들이 경고했던, 견고한 도덕적 기반 없이 오직 외적인 힘에만 의존하는 통치 방식인 '패도(霸道)'의 표현이 아닐까요?

류사원:

(소피아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한 후, 그의 얼굴에 깊은 사색과 공감이 역력했다.)

소피아 씨, 당신의 이야기와 연상은 실로 매우 가슴에 와 닿고, 매우 형상적입니다. "유칼립투스 숲"... 그것은 저를 소름 돋게 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의 소위 '기적적인 부상'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천루,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 눈부신 GDP 성장률... 그것들은 화려하고, 보기 쉬우며, 겉만 보거나, 혹은 애써 진실을 외면하려는 이들을 설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푸르름'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 국민이 숨쉬기조차 두려워하는 오염된 공기, 고갈되고 오염된 수자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양심, 동포의 건강과 생명을 무시하고 돈을 위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을 때의, 끝없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것은 수백만 무고한 국민, 파룬궁 수련생, 위구르인, 티베트인들이 탄압받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할 때의, 인권 유린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가 외래의 투쟁적이고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로 대체될 때의, 침식과 사막화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패도(霸道)'와 연관 지은 것은 전적으로 정확합니다. 옛사람들은 '왕도(王道)'와 '패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왕도'는 인의(仁義)와 덕으로 인심을 얻어, 천하가 자연스럽게 귀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패도'는 무력, 권모술수, 압제로 통치하여, 사람들이 존경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바로 전형적인 '패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력을 이용해 다른 국가들을 매수하고 영향

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선전 기구를 이용해 이미지를 미화하고 범죄를 은폐합니다. 그들은 군대, 공안을 이용해 국내의 반대 목소리를 탄압합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일부 표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이 환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거짓된 번영이며, 견고한 뿌리가 없는 유칼립투스 숲의 '푸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 두려움, 그리고 인간의 핵심 가치 파괴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패도'가 더 이상 억압할 힘이 없거나, 혹은 국민이 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워질 때, 그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줄리안 리:

소피아 씨의 "유칼립투스 숲" 이미지는 정말 강력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법칙을 보여줍니다. 즉, 너무 빨리 성장하고, 내부 기반을 무시한 채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것은, 종종 잠재적인 파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지속 불가능한 '과열 성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치에서도, 국민의 진정한 동의 없이 오직 강제력에만 의존하는 정권은 조만간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패도'가 류 선생님께서 방금 분석하신 것처럼, 중공의 대내 통치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외교 정책에서도 그 표현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구상은 처음에는 상생 협력으로 홍보되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곳에서 '부채의 덩어리'로 변질되어, 중국이 지정학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심지어 다른 국가의 주권에 개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경제력을 이용해 의지를 강요하는, 국제 관계에서의 '패도'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옛 시대의 진정한 비전과 덕을 가진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에 기반하여 영향력을 구축하는 '왕도'와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류사원:

줄리안 씨 말이 맞습니다. 그 '패도'는 밖으로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자신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중국 모델'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존경이 물질적 힘이나 강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인류에게 기여하는 도덕, 인문적 가치에서 와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공이 세계에 '기여'한 것은 불안정, 불공정한 경쟁, 그리고 유해한 이데올로기의 확산뿐인 것 같습니다.

소피아 벨:

현대 중국의 '성과' 중,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고속철도 시스템은 약 15 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에 건설되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온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저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성과는 민심을 얻기 매우 쉬운 것입니다... 몇 주 전, 하버드 대학에서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유학 중인 한 중국인 여학생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중국과 고향에 있는 그녀 가족의 삶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혁명 원로 당원이었고,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한번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정치적 견해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꾸짖었다고 말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이 없었으면 네가 지금 무슨 수로 호화 주택과 차를 누리겠느냐?! 당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반동 자본가 놈들의 썩어빠진 소리나 하다니?!"

이 여학생의 이야기는 제게 중국 사회의 복잡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물질적 성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가, 사상 강요, 그리고 아마도 유가가 일찍이 내세웠던 온화한 길, '중용(中庸)'의 도가 부재한 것이 아닐까요, 류 선생님, 줄리안 씨? '중용'의 부재가 정부와 일부 대중의 사고와 행동 모두에서 그러한 갈등과 극단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요?

류사원:

(소피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는, 슬픈 기색을 띤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소피아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오늘날 중국의 많은 가정, 특히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혁명 시기를 겪고, 당의 사상을 깊이 '세뇌'받고 젖어든 노년층과, 외부 세계와 접촉할 기회가 있고 다른 인식을 가진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 할아버지의 꾸짖음, "당이 없었으면 네가 지금 무슨 수로 호화 주택과 차를 누리겠느냐?!" – 그것이야말로 공산당이 국민의 머릿속에 성공적으로 주입해 온 논리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경제 발전, 물질적 성과를 당의 존재 및 '위대한' 역할과 동일시합니다. 그들은 국민이 자신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당이 베풀어준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따라서 '당에 감사'하고, 당에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한다고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그 경제 발전은 수백만 노동 인민의 땀과 눈물, 심지어 생명 덕분에 얻어진 것이고, 세계의 과학 기술을 늦게나마 받아들인 덕분이며, 또한 환경, 도덕, 인권을 대가로 치른

것입니다. '호화 주택과 차'는 사실일 수 있지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상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유가의 '중용(中庸)의 도'의 부재와 연결시킨 것은 매우 정확합니다. '중용'은 이도 저도 아닌, 주견 없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편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화함, 이성, 그리고 덕의 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이래로, 항상 극단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문화대혁명과 함께 극좌로 치닫거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잔혹하게 투쟁했습니다. 혹은 도덕과 환경을 무시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극우로 치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중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투쟁', '소멸', '강요'만 있을 뿐입니다.

그 '중용'의 부재는 그들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화 대신, 조화를 찾는 대신, 그들은 파룬궁에게 했던 것처럼, 오직 폭력으로 탄압할 줄만 압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와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그 어떤 것의 존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극단성, 사고와 행동에서의 '중용'

의 부재가 중국 사회에 무수한 비극과 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줄리안 리:

소피아 씨의 이야기와 '중용의 도'에 대한 류 선생님의 분석은 매우 깊이 생각해볼 만합니다. 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고의 극단성은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독재 정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유일하게 옳다고 간주될 때, 모든 반대 의견은 '반동적', '적대적'으로 여겨지므로, 온화함과 공통점을 찾을 여지가 없어집니다.

유가의 '중용의 도'는, 만약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내면의 자제와 균형에 대한 매우 심오한 철학이며, 그것을 통해 사회 관계의 조화와 국가의 안정을 이끌어냅니다. 그것은 사람이 큰일을 생각하기 전에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중'을 지키지 못하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 눈앞의 이익에 쉽게 흔들린다면, 그의 행동은 극단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소피아 씨 이야기 속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맥락에서, 우리는 존중과 이성에 기반한 대화 공간의 부재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입된 구호와 편견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더라도, 온화

하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많은 사회의 큰 상처이며, 그것은 종종 개인적 차원과 국가 통치 차원 모두에서 '중용' 수양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중용'이 없는 사회는 쉽게 선동되고, 쉽게 분열되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류사원:

맞습니다. '중용'은 또한 '때(時)'를 알고, '자리(位)'를 알며, 각 상황에 무엇이 적합한지 알고, 경직되지 않고, 교조적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중공은 항상 현실과 민중의 염원을 무시하고, 하나의 틀, 하나의 의지를 사회 전체에 강요합니다. 그것은 '중용' 정신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소피아 벨:

줄리안 씨께 이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서방 국가의 많은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 관리들과 접촉하고 인터뷰하신 경험을 통해, 그들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방금 논의한 중국 고대 사상, 예를 들어 지도자의 도덕성의 중요성이나, 국가 통치에 있어 온화하고 균형 잡힌 길의 필요성과 같은 것들과 어떤 공감대가 있었나요?

줄리안 리: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소피아 씨. 실로, 서방의 지도자들, 정책 입안자들, 특히 퇴임 후 성찰의 시간을 가진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매우 생각해볼 만한 공통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록 다른 언어와 참조 체계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동양의 고대 지혜와 놀라운 유사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첫째, 많은 전직 지도자들이 권력의 압박에서 벗어난 후 종종 강조하는 한 가지는, 현대 정치의 지나친 실용주의와 도덕적 침식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그들은 정책 결정이 종종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나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이익, 로비 단체, 재선 압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류 선생님과 동양 철학자들이 말했던 '덕의 뿌리'의 부재를 반영합니다. 지도자가 더 이상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제도가 아무리 민주적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조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 내의 점증하는 양극화와 공동의 목소리, 합의를 찾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고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

이 언론, 소셜 미디어, 그리고 정치적 술수가 상호 이해와 대화를 촉진하기보다는, 분열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논의한 '중용(中庸)의 도'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온화함, 다른 관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사회는,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은, '침묵하는 사람들', 즉 자신의 공동체에서 핵심적인 도덕 가치를 지키는 평범한 개인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점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류 선생님께서 읽어보신 『AFTER POWER: THE LEGACY』의 전직 대통령처럼, 그 역시 한 국가의 미래가 단지 정치인이나 엘리트의 손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도덕적 힘에 크게 의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사회 도덕이 가정과 공동체의 기반 위에서 구축된다는 유가(儒家)의 관점과 일정한 공감대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전직 지도자들은 삶의 의미, 그들이 남기는 진정한 유산에 대해 더 깊은 철학적, 영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권력과 명예도 결국 지나가고, 남는 것은 인문적 가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 이것은

뒤늦은 '수신(修身)'의 한 형태일지라도, 여전히 매우 귀중합니다.

물론, 서양 문화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정의, 덕(virtue)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자연권, 사회 계약, 공화국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이르기까지, 고유한 사상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상들 속에서는 이성, 법률, 제도의 역할이 종종 강조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동양 사상과의 연결고리, 즉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고, 지도자가 민중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을 봅니다. 차이점은 아마도 방법과 강조점에 있겠지만,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목표 지점에서는 만남이 있다고 믿습니다.

류사원:

(줄리안의 말을 들으며,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줄리안 씨의 나눔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른 정치 체제 안에서든, 도덕, 지도자의 역할,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고뇌는 인류의 영원한 질문인 것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인간이 이론과 모델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다시 가장 핵심적인 가치, 대법(大

法)이 늘 언급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선량한 본성에 속하는 것들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피아 벨:

저희는 고대 중국의 몇몇 치국 관점에 대해 논의했고, 서양의 관점에서 줄리안 씨의 몇 가지 나눔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관점에서는 어떤가요... 류 선생님은 파룬궁 수련인이시고, 줄리안 씨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다른 종교의 경전을 즐겨 읽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선(善)과 악(惡)의 관념, 치국에서의 도덕, 혹은 주요 종교들이 이상적인 사회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말할 때 흔히 언급하는 보편적 원리들에 대해 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류사원:

(그의 눈빛이 한결 고요해지고,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소피아 씨, 수련인의 관점, 특히 대법(大法)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후에 보면, 저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정교(正教)는, 비록 표현 형식과 구체적인 교리는 다를지라도, 귀결되는 바는 모두 사람이 선(善)을 향하고, 신불(神佛)을 믿

으며, 인과(因果)의 법칙을 믿고, 보편적인 도덕 가치를 드높이도록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의 관념에 대해서, 모든 정교는 매우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선은 천리(天理)에 순응하는 것이고, 자비이며, 관용이고, 진실이며, 인내입니다. 악은 천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이기심이며, 잔혹함이고, 거짓이며, 투쟁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려는 사회는, 선을 근본으로 삼고 악을 배척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선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서, 자신의 덕으로 민중을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지도자의 마음에 사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악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국가는 반드시 쇠락하고 민중은 고통받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탄압이야말로, 한 정권이 진(眞)·선(善)·인(忍)에 따라 수련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소멸시키려 할 때의, 악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주요 종교는 또한 인과의 법칙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씨앗을 심든 그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악한 일을 한 개인은 보응을 받아야 하고, 죄악을 저지른 정권 또한 하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틀릴 수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제가 체제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중공이 저지른 죄악들, 특히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생들로부터의 장기 적출 범죄는, 조만간 반드시 드러나고 주모자들은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치국의 도리에 대해서, 정교들은 보통 정치 학설처럼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모두 지도자가 신령(神靈)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하고, 민중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며, 폭력이 아닌 인덕으로 다스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보호하고, 민중이 도덕을 수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역사는, 지도자가 신불을 공경하고, 현명하고 재능 있는 이를 등용하며, 민중의 도덕적 삶을 돌보는 왕조나 국가는, 보통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폭군, 믿음을 탄압하는 정권은, 조만간 도태될 것입니다.

줄리안 리:

(고개를 끄덕이며, 류 선생님의 말에 덧붙인다.)

류 선생님께서 나누신 내용은 매우 깊이 있고, 많은 주요 종교의 핵심 정신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경에서부터, 이슬람의 쿠란, 혹은 힌두교의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전을 두루 살펴본 사람으로서, 저는 매우 명확한 공통분모를 발견했습니

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질서, 즉 최고 존재의 실재와, 인간은 그 최고 존재의 뜻에 순응하여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즉 도덕과 정의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며,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이 따를 때, 나라는 번성했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백성을 압제할 때, 재앙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정의(Divine Justice)'라는 개념은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슬람에서, 지도자(칼리프)는 공동체의 공정(Adl)과 공동선(Maslaha)을 보장하기 위해 샤리아 율법을 집행하는 예언자의 계승자로 여겨집니다. 경건함(Taqwa)과 청렴함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힌두교에서는, '다르마(Dharma, 道法, 의무, 우주 질서)'라는 개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라자)는 '라자 다르마(Rajadharma)' – 즉 통치자의 의무 – 를 가지며, 이는 다르마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신민의 번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르마를 거스르면, 즉 아 다르마(Adharma)가 되면,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표현 방식은 다를지라도,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좋은 사회는 도덕적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하고, 지도자는 덕행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신성하고 초월적인 가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특히 권력을 쥔자들이 이 영적인 근원과의 연결을 잃고, 오직 세속적인 권력과 물질만을 좇을 때, 그때가 바로 악이 일어설 기회를 얻고 사회가 쇠퇴로 들어서는 때입니다.

류사원:

줄리안 씨가 아주 잘 요약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떤 종교든, 그 근본은 여전히 사람이 선을 향하고, 신을 공경하며 보응을 믿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도덕을 붙잡아주는 끈입니다. 중공이 그랬던 것처럼 그 끈이 끊어지면, 인간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고,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소피아 벨:

네, "뿌린 대로 거둔다", "보응"에 대해서, 저도 불교의 '업력윤보(業力輪報)'와 같은 개념을 읽은 적이 있고, 옛 중국인들은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 보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善有善報, 惡有惡報, 不是不報, 時辰未到)"라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최고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늘과 땅을 공경하고, 신불(神佛)을 공경하며, '보응'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사회 전체의 도덕이 향상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덕'이야말로 흥망성쇠의 근본적인 기반이 아닐까요? 덕이 많으면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며, 덕이 얇고 업이 크면 나라가 쇠퇴하고 사회가 혼란하며, 백성이 고통받는...

'뿌리'와 '가지'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오늘날 많은 정부, 특히 중국 정부가 오직 '법치'를 근본으로 삼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도덕적 기반이 없는 '법치'는 단지 가지일 뿐이며, 심지어는 집권자들의 '무덕(無德)'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닐까요, 류 선생님, 줄리안 씨?

류사원: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에 깊은 동의의 빛이 역력했다.)

소피아 씨, 방금 당신이 한 말은 정말 문제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전적으로 정확합니다!

만약 사람이, 군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인과응보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믿으며, 자신의 모든 행위가, 선하든 악하든, 은밀하든 공개적이든, 모두 상응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안다면, 분명 사회 도덕은 굳건히 지켜지고 향상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신불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업력의 보응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은 감히 악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고, 감히 탐욕을 부리지 못하며, 감히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가혹한 법규가 없어도, 사회는 자연스럽게 안정과 조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덕'이야말로 한 국가의 뿌리이며, 흥망성쇠의 기반입니다. 수천 년의 중국과 세계 역사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군주가 현명하고 신하가 충성스러우며, 상하가 한마음으로 도덕을 수양하는 왕조는,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안락했습니다. 반대로, 도덕이 쇠퇴하고, 군주가 음란하고 무도하며, 관료가 부패할 때, 그 국가가 아무리 강대했더라도, 빠르게 쇠퇴와 혼란의 길로 들어서고, 백성은 고통받았습니다. "덕이 많으면 국태민안이요, 덕이 얇고 업이 크면 나라가 쇠퇴한다" -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법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인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가지'일 뿐이며, '덕치(德治)'를 보조하는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 정부가 오직 법률과 처벌에만 의존하고, 도덕 교화를 등한시하며,

백성을 위한 믿음의 기반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특히 오늘날 중국처럼, 공산당은 항상 '사회주의 법치'를 떠벌리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법률이 단지 당의 권력을 보호하고,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며,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법치'를 이용해 전체 시스템의 '무덕'을 은폐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도덕이 없고, 법률 자체가 무도한 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그 '법치'는 무법 상태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의'라는 거짓된 옷을 입고 국민과 세계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파룬궁 탄압이 바로 눈앞의 예입니다. 그들은 모호한 법률을 만들고, 부당한 죄명을 씌워 온화한 수련인들을 체포하고 판결합니다.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률과 인류의 공의를 짓밟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진정으로 안정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덕치'가 뿌리가 되어야 하고, '예치(禮治)'(예절과 문화로 교화)가 줄기가 되어야 하며, '법치'는 단지 가지와 잎, 즉 도덕이 더 이상 억제력을 갖지 못할 때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줄리안 리: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덕치'와 '법치'의 관계에 대한 류 선생님의 분석은 지극히 깊이가 있습니다. 서양 정치 사상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 보편적인 도덕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보는 자연법 학파(natural law)와, 법 제정 과정의 형식적 타당성만을 중시하는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 학파 간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상가들이 아무리 엄격한 법률 시스템이라도, 사회와 그 집행자들의 도덕적 기반이 없다면, 스스로 정의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법률은 잘못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선한 마음의 씨앗을 뿌릴 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어느 정도 범죄를 막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소피아 씨와 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사람이 초월적인 가치, 인과응보를 믿는다면, '마음속의 법'이 종이 위의 법보다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때, '법치'는 더 가벼워지고, 단지 예외적인 경우를 조정하는 도구로서의 역할만 할 뿐, 통치의 주요 수단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공이 '법치'를 강조하면서 믿음을 탄압하고 전통 도덕을 파괴하는 것은, 실제로는 자가당착이며 스스로 무덤을 파

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덕'이라는 기반이 없는 '법치'는, 단지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하여, 조만간 역사의 폭풍과 양심의 심판 앞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류사원:

맞습니다. 덕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소피아 벨:

이런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어디서 읽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이런 뜻이었습니다. "덕이 얇은데 높은 자리에 있고, 지혜가 부족한데 큰일을 도모하면, 재앙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아마도 이것이 오늘 우리 나눴의 주된 정신인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본래 덕이 얇아, 중국 국민에게 재앙과 혼란을 일으켰고, 그 정점은 선량한 파룬궁 수련인들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 두 분께서 말씀하신 '보응'이 닥치면, 바로 그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두 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류사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눈빛은 굳건하고 다소 장엄했다.)

소피아 씨, 그 말은, 비록 출처는 기억하지 못하신다 해도, 매우 큰 진리,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덕이 얇은데 높은 자리에 있고, 지혜가 부족한데 큰일을 도모한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 그리고 파룬궁 탄압을 저지른 자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들은 신불에 대한 믿음도, 도덕적 기반도 없고, 오직 끝없는 권력욕과 그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음모, 잔혹한 수단을 이용해 통치를 유지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탄압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정확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지혜가 권력 다툼, 기만과 통제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짊어지려는 짐 - 한 민족 전체의 운명, 한 지역 전체의 안정 - 그러나 그 얇은 덕과 부족한 지혜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재앙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는 국가 전체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파룬궁 탄압이야말로 그 '무덕'과 '무지'의 정점입니다. 진(眞)·선(善)·인(忍)에 따라 사는 사람들, 사회에 좋은 도덕적 가치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은, 단지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국가의 도덕적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했듯이, 인과의 법칙은 틀림이 없습니다. "선에는 선한 보답이,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 그들이 뿌린 것은, 반드시 그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보응'이 오는 날이, 내일이나 모레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역사는 어떤 폭압 정권도, 특히 자기 국민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맞서 천인공노할 죄악을 저지른 폭압 정권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줄리안 리:

(깊은 생각에 잠겨)

소피아 씨가 인용한 그 말은, 비록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 핵심적인 의미는 보편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 특히 큰 책임을 맡았을 때의 도덕적, 지적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정치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많은 제국, 많은 강력한 지도자들이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교만, 자연 및 사회 법칙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부로부터의 도덕적 침식에서 비롯된 실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중국 공산당은 특정 물질적 성과를 달성했을 수 있고, 정교한 통제 기구를 구축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도자들의 '덕'이 그들이 쥔 권력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들의 '계략'이 인간의 이익과 존엄성에 반한다면, 조만간 그 성과들은 무의미해지고, 그 기구 또한 그것이 저지른 죄악과 실수의 무게 아래 무너질 것입니다.

파룬궁 탄압은 단지 인권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깊은 도덕적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류 선생님과 소피아 씨가 말했듯이, 그러한 행동들은 반드시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보응'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 (비록 늦을지라도) 법의 처벌에서부터,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이르기까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떤 악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소피아 벨: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선과 악에 대한 관점, 덕을 근본으로 삼는 고대 치국 관점, 그리고 인과와 보응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정오가 다 되어가니, 세 번째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두 번의 나눔과 함께, 저희는 류 선생님의 이야기, 파룬궁 탄압을 통해 드러난 중국 공산당의 사악함,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강제 적출하는 죄악에 대해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 나누어주신 메시지는 모두 이 시대의 아픈 문제들이며, THE LIVES MEDIA 의 독자들을 포함한 우리 각자가 진실을 직시하고 정의와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택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류 선생님, 만약 오늘 나눔을 마무리하는 작별 인사로, THE LIVES MEDIA 의 독자들에게 짧지만 진심 어린 한 두 마디 말씀을 하셔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류사원:

(감사한 눈빛으로 소피아와 줄리안을 바라본 후, 아득한 곳을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강렬한 믿음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소피아 씨, 줄리안 씨, 그리고 두 분을 통해, THE LIVES MEDIA 의 독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 끝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뒤덮더라도, 진실과 양심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眞)·선(善)·인(忍)의 빛은 불멸하며, 정의는 결국 반드시 사악함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퍼져나가는 모든 진실 하나하나, 정의를 위해 터져 나오는 모든 목소리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헤아릴 수 없는 기여가 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피아 벨:

지난 3 일간의 인터뷰 동안 매우 깊이 있고 용기 있는 나눔을 해주신 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고 가치 있는 분석을 더해주신 줄리안 씨께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메시지들을 독자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줄리안 리:

믿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류 선생님. 선생님의 이야기와 견해는 실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 되고 강력한 일깨움을 주었습니다.

류사원:

저 또한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시고 제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신 소피아 씨와 줄리안 씨께 감사드립니다.

* * *

맺음말

사흘간의 대화가 막을 내렸다. 선언문도, 요란한 북소리도 없었다 — 역사라는 폭풍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한 사람이, 자신이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더는 침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할 뿐이었다.

저희는 독자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시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지막까지 무언가 남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마음속을 찌르는 하나의 질문일 것입니다. 허락된 말들의 껍질 아래,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가?

'붉은 베일'은 논쟁을 추구하지도, 심판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기억과 양심의 여정이며, 저희가 보존할 수 있었던 가장 진솔한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들이 어딘가의 누군가를 잠시 멈추어 성찰하게 할 수 있다면 — 아마도, 이 책은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일 겁니다.

소피아 벨 (Sophia Bell)

THE LIVES MEDIA

* * *

저자 및 THE LIVES MEDIA 프로젝트에 대하여

저자 소개

소피아 벨 (Sophia Bell) 은 정치, 문화, 사회, 과학, 여성 등의 주제를 탐구하는 독립 작가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진리를 추구하고 양심을 일깨우며, 인류의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에 목소리를 부여합니다.

그녀의 작업은 종종 실제 인터뷰에서 출발하며, 정직함과 감정적 깊이, 그리고 깨달음의 정신으로 기록됩니다.

프로젝트 소개

이 책은 THE LIVES MEDIA 에서 출판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THE LIVES MEDIA 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글로벌 비전의 독립 출판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매일의 뉴스를 쫓기보다는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는 책을 지향합니다.

연락처

- ✧ Website: www.thelivesmedia.com
- ✧ Email: editor@thelivesmedia.com
- ✧ QR Code:



같은 프로젝트의 다른 작품들

THE LIVES MEDIA 의 다른 출판물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홍진 · 금광 (Red Dust, Golden Light)
- 권력 그 후: 유산 (After Power: The Legacy)
- 과학의 황혼과 여명 (Sunset and Sunrise of Science)
- 붉은 베일 (The Red Veil) → 바로 이 책입니다
- 시간 이전의 울림 (Echoes Before Time)
- 속세로 (Entering The World)
- 마지막 종소리 (The Last Bells)
- 우리 이전 (Before Us)

- 천 개의 삶 (Thousand Lives)

**이 책을 읽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를 탐험하는 당신의 여정에 신과 부처님의 가호가 있
기를 빕니다.**